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20)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분석

③ 가구주 교육정도별 &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10. 28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1. 들어가며	10
2. 가구주 교육정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13
2) 가구 재무(자산 & 부채) 상태 변화	25
3) 가구 재무건전성 추이	31
3.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36
2) 가구 재무(자산 & 부채) 상태 변화	52
3) 가구 재무건전성 추이	59
3. 나가며	63

요약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활용, 지난 11년간(2010~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소주 제별로 연속하여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1차 보고서는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 항목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차 보고서는 “가구주 성별 그리고 종사상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남녀 가구 간은 물론 상용노동자 및 임시일용직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다. 둘째, 고소득·고자산 가구 집단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였고,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켰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이었다. 넷째, 2016년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은 악화되고 있었으며, 소득 취약 가구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요구는 늘어나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가구주 교육정도 및 연령대별로 소득 및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구주 교육정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2020년 기준 가구주 학력별 가구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이하 ‘대졸’로 표기) 가구가 40.1%, 고졸이 34.1%, 중졸 10.0%, 초졸 이하(이하 ‘초졸’로 표기) 가구가 15.7%였다. 가구주 평균연령은 초졸이 72.9세로 가장 많았고, 중졸(65.0세), 고졸(54.7세)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졸 가구주는 48.4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대졸이 3.1명, 고졸은 2.7명, 중졸은 2.1명, 초졸은 1.7명이었다. 높은 교육열과 의무교육의 확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졸 이상 가구분포와 평균연령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 가구소득은 대졸(8,326만원), 고졸(5,401만원), 중졸(3,752만원), 초졸(2,322만원) 등으로,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도 많았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순증액도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대졸 2,877만원(5,449→8,326만원), 고졸 1,780만원(3,621→5,401만원), 중졸 940만원(2,813→3,752만원), 초졸 798만원(1,524→2,322만원) 등이었다. 연평균소득증가율도 대졸(4.38%) 가구가 고졸(4.12%)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세전소득 불평등

은 더 심해졌는바, 대출과 고졸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는 2010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6만원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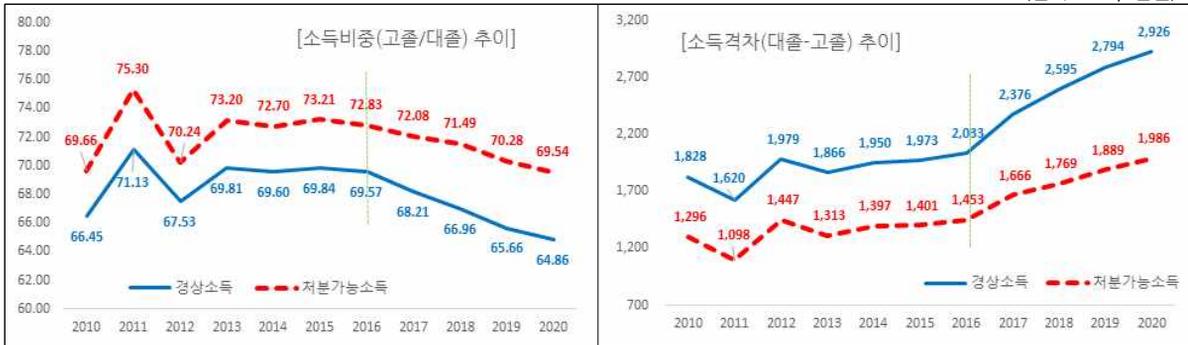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대출 가구가 2,248만원(4,273→6,5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558만원(2,976→4,535만원), 중졸 918만원(2,365→3,283만원), 초졸 759만원(1,317→2,07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 가구 처분가능소득 연평균증가율은 4.37%로, 고졸 가구와 같았는바, 대출과 고졸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도 2010년 1,296만원에서 2020년 1,986만원으로 벌어졌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대출 가구 대비 고졸 가구소득 비중을 보면, 경상소득(66.45→64.86%)과 처분가능소득(69.66→69.54%) 모두 기준연도 대비 소득 비중이 줄었다.

대출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이 지난 11년간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2016년 이후 대출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불평등 추세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대출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비중 및 격차 추이

(단위 :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를 보면, 가구주 평균연령이 노동시장에서 한 창 일할 연령대인 대출(48.4세)과 고졸(54.7세) 가구는 노동소득 증가액이 각 1,552만원과 87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노동시장 법정정년(만 60세)을 넘는 중졸(65.0세)이나 초졸(72.9세)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각 396만원, 367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가구 집단 모두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적이전소득은 중졸 가구가 증가율(196.22%)과 증가액(396만원) 모두 가장 많았고, 재산소득은 대출 가구가 증가율(123.54%)과 증가액(340만원)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한편 소득원천 중 사업소득은 모든 가구집단에서 가장 취약했는데, 대출 가구만 7.04%(90

만원) 증가했고, 고졸 -3.48%(-48만원), 중졸 -8.77%(-87만원), 초졸 -28.89%(-154만원) 가구 모두 역성장 추세를 보였다.

대졸 가구 노동소득 비중은 2012년 71.07%에서 2020년 70.67%로 -0.40%p 줄었고, 고졸 가구 노동소득 비중은 57.14%에서 59.76%로 2.62%p 상승했지만, 2020년 기준 대졸과 고졸 가구의 노동소득 비중 격차는 10.91%p에 달했다. 결국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격차는 노동소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졸과 고졸 가구 간 노동소득 격차는 2012년 1980만원(대졸 4,332만원 - 고졸 2,352만원)에서 2020년 2,657만원(5,884만원 - 3,228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소득원천 중 사업소득 비중은 초졸(-14.40%p), 중졸(-8.22%p), 고졸(-8.83%p), 대졸(-4.53%p) 등 모든 가구 집단에서 줄어들어, 자영업 환경이 악화되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비지출 증감액을 보면, 대졸(512만원) > 고졸(282만원) > 초졸(157만원) > 중졸(62만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비지출증가율은 대졸(16.42%) > 초졸(14.73%) > 고졸(11.98%) > 중졸(3.50%) 등이었다.

1인당 소비지출증가율은 가구 소비지출증가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구 소비지출증가율은 대졸(16.42%) 가구가 가장 높았었지만, 1인당 소비지출증가율은 초졸(30.52%) > 고졸(28.00%) > 중졸(26.21%) > 대졸(20.21%)의 순으로, 대졸 가구가 가장 낮았다. 1인당 소비지출액 변화로 판단하면, 대졸 가구 소비지출이 다른 가구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1인당 식료품비는 대졸(340만원), 고졸(295만원), 중졸(279만원), 초졸(248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1인당 식료품비 지출도 많아는데, 결과적으로 학력이 인간의 식생활 수준마저 좌우하고 있었다.

2020년 기준 1인당 의료비지출액은 초졸(106만원, 평균연령 72.9세), 중졸(93만원 / 65.0세), 고졸(67만원 / 54.7세), 대졸(60만원 / 48.4세) 등으로,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액도 많았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 또한 초졸(86.45%), 중졸(93.15%) 가구에서 높았으며, 대졸 가구 증가율은 26.37%에 머물렀다.

2020년 고졸 가구주 평균연령은 54.7세로 유자녀 가구의 경우 여전히 교육비 지출이 불가피한 연령대라 할 수 있는데, 대졸 가구 대비 고졸 가구 교육비 비중은 2012년 62.20%에서 2020년 43.71%까지 하락, 고졸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 소득 격차가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고졸 가구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주어진 교육 기회가 미래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저축가능액(소득-소비·비소비지출) 순증액은, 대졸 가구 1,145만원(1,744→2,889만원) > 고졸 836만원(1,063→1,899만원) > 중졸 584만원(865→1,449만원) > 초졸 374만원(479→853만원) 등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은 고학력 가구일수록 저축가능액도 더 많이 늘어났다. 학력에 따른 노동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총자산 증가율을 보면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증가율도 높았는데, 대졸(64.23%/40,258→66,115만원) > 고졸(49.75%/24,116→36,114만원) > 중졸(30.18%/21,818→28,403만원) > 초졸(24.17%/14,615→18,14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순증액 또한 대졸(25,857만원), 고졸(11,998만원), 중졸(6,585만원), 초졸(3,532만원) 순이었다.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0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6만원으로 1.6배가 늘었는데, 자산 격차는 16,143만원에서 30,001만원으로 1.86배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그림] 대졸 및 고졸 가구 간 소득·자산 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한편 소득 및 자산 모두 2016년을 기점으로 격차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2016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시작하던 해였다.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2010년 1월 53,99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은, 이후 48,000만원대에서 54,000만원대의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2016년 1월 55,282만원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후 급등세를 연출, 2020년 12월 104,299만원까지 상승했다. 대졸 가구의 소득(특히 재산소득)이나 총자산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

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보유 부채 변화를 보면, 부채 순증액은 대졸이 5,981만원(7,326→13,307만원), 고졸 2,660만원(3,978→6,638만원), 중졸 851만원(2,870→3,721만원) 등이었고, 초졸 가구는 -46만원(1,834→1,788만원) 줄었다.

부채증가율은 대졸(81.64%), 고졸(66.87%), 중졸(29.65%), 초졸(-2.51%) 등으로, 특히 대졸 가구 부채증가율은 81.64%로 매우 높았는데, 금융부채 증가율 또한 92.47%(4,995→9,614만원)로 가장 높았다.

순자산 순증액은 대졸 19,875만원(32,933→52,808만원), 고졸 9,339만원(20,138→29,477만원), 중졸 5,733만원(18,949→24,682만원), 초졸 3,578만원(12,781→16,35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졸 가구 순자산이 고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두 가구 간 순자산 격차는 2010년 12,795만원에서 2020년 23,331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그런데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순자산 격차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는 가계부채로, 순자산이 더 많이 늘어난 대졸 가구의 부채 순증액은 5,981만원으로 고졸 가구 2,660만원보다 2.25배나 더 많았다. 자산 증식을 위해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것이었다.

부채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대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0년 171.46%에서 2020년 204.09%로 32.63%p가 늘어났다.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204.09%는 국내외적으로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이 분명했다. 고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33.65%에서 146.38%로 12.72%p가 상승했다.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6년 157.36% 이후 비율이 더 오르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가구주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이하 '60대 가구') 분포는 2010년 28.4%에서 2020년 40.1%로 11.7%p 증가했다. 평균연령이 50~59세인 가구(이하 '50대 가구') 분포는 20.8%에서 24.5%로, 기준연도인 2010년과 비교해서는 17.6% 늘어났지만, 2015년 25.5%로 최고치를 보인 뒤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2020년 현재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60대 가구가 유일했다. 연령대별 가구분포 변화 추이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출산·청년층의 결혼 포기,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들이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 증가액은 50대가 2,904만원(4,645→7,549만원), 40대 2,870만원(4,778→7,648만원), 30대 2,162만원(4,184→6,346만원), 60대 1,853만원(2,136→3,989만원), 20대 826만원(2,707→3,53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20대 가구 경상소득은 3,533만원으로 60대 가구 3,989만원보다 적었으며, 40대 경상소득(7,648만원)의 46.2%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현재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 또한 40대 가구로 6,079만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50대가 2,329만원(3,724→6,0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272만원(3,808→6,079만원), 30대 1,740만원(3,383→5,123만원), 60대 1,604만원(1,774→3,378만원), 20대 766만원(2,272→3,038만원)의 순이었다.

40대 가구 대비 20대 가구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56.66%에서 2020년 46.19%로 -10.47%p 하락했으며, 처분가능소득 비중 또한 59.68%에서 49.98%로 -9.7%p 줄었다. 그 결과 두 가구 집단 간 경상소득 격차는 2010년 2,071만원에서 2020년 4,115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1,536만원에서 3,041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대 가구와 40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60대 가구는 유일하게 40대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확연하게 줄면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다. 60대 가구의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44.70%에서 2020년 52.16%로 7.46%p 상승했고, 처분가능소득 비중도 46.59%에서 55.57%로 9.98%p 늘어났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소득 변화(증가율&순증액)를 보면, 20대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순증액)은 202.93%(79만원)로 두드러져 보였지만, 30대 333.79%(160만원)와 40대 193.98%(113만원) 가구와 비교하면, 순증액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할 때 20대 가구 사업소득은 증가율(112.29%)도 가장 높았고, 순증액(252만원)도 가장 많았지만, 노동소득 증가율(10.20)과 순증액(256만원)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20대 청년 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자영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0대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333.7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 확대와 더불어 2013년부터 시작된 양육수당 지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50대 가구 사업소득 증가율은 -7.38%로 감소했고, 노동소득 증가율은 69.28%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50대 가구 상당수가 자영업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60대 가구 또한 노동소득 증가율은 104.44%였으며 순증액은 860만원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20대와 6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비중을 보면, 20대 가구 비중은 2010년 74.57%에서 2020년 63.06%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반면 60대 가구는 58.21%에서 70.12%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소비지출증가율은 20대(20.66%), 30대(22.65%), 40대(23.77%), 50대(20.38%), 60대(37.27%) 등으로 20대와 50대의 소비지출증가율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 1인당 소비지출액을 보면, 20대 가구가 1,21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0대(1,111만원) > 40대(1,081만원) > 30대(1,007만원) > 60대(91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소득은 적지만 20대가 가장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하고 있었다.

2020년 기준 1인당 식료품비 또한 20대 가구가 371만원으로 30대(318만원), 50대(314만원), 40대(306만원), 60대(304만원)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 가구 식료품비 지출은 2016년 이후 급등 추세를 보였는데, 당시 주택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말 그대로 'N포세대'의 모습을 연출했다.

2020년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보면 60대가 1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61만원) > 30대(50만원) > 40대(49만원) > 20대(44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매우 많았는데, 평균연령이 70.5세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저축가능액 추이를 보면,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축가능액 증가율 또한 높았는데, 60대가 130.54%(668→1,540만원)로 가장 높았고, 50대 87.27%(1,453→2,721만원), 40대 77.76%(1,352→2,403만원), 30대 57.53%(1,399→2,204만원), 20대 23.62%(889→1,09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저축가능액 증가액은 50대 1,26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051만원), 60대(872만원), 30대(805만원), 20대(210만원)의 순이었다.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았던 20대 가구의 저축가능액 증가율(23.62%)과 순증액(210만원)은 가장 적었는데, 순증액 210만원은 50대 가구 순증액(1,268만원)의 16.6%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총자산액은 50대(50,903만원)가 가장 많았고, 40대(48,686만원) > 60대(42,701만원) > 30대(35,467만원) > 20대(10,7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총자산 순증액은 40대(19,684만원)가 가장 많았고, 30대(15,771만원), 50대(14,532만원), 60대(13,217만원), 20대(3,152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총자산 증가율은 30대(80.07%) > 40대(67.87%) > 60대(44.83%) > 20대(41.65%) > 50대(39.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증감액과 증가율이 모두 높았던 40대와 30대 가구의 공통된 특징은 ①부채증가율과 순증액이 40대(101.33%, 5,701만원), 30대(153.25%, 6,101만원) 등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②실물자산 증가율과 순증액도 40대(66.87%, 14,447만원), 30대(77.89%, 10,374만원) 등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많이 늘려 상대적으로 실물자산 비중을 늘렸던 가구 집단의 총자산이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0대와 40대 가구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결과,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가구와의 자산 격차는 줄어들었다. 50대 가구와 3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2010년 16,674만원에서 2020년 15,435만원으로 줄었다. 50대 가구와 4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2010년 7,369만원에서 2020년 2,21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변화를 보면, 부채 순증액은 30대(6,101만원)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5,701만원), 50대(3,695만원), 20대(2,543만원), 60대(1,61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증가율과 순증액이 모두 많았던 30대(6,101만원, 153.25%)와 40대(5,701만원, 101.33%) 가구는 자산(30대 80.07% / 40대 67.87%) 및 순자산(30대 61.52% / 40대 59.88%) 증가율 또한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순자산액은 50대(40,987만원) > 60대(37,422만원) > 40대(37,359만원) > 30대(25,385만원) > 20대(7,241만원) 가구 순으로 많았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순증액은 40대(13,992만원) > 60대(11,607만원) > 50대(10,836만원) > 30대(9,669만원) > 20대(609만원) 등이었다. 20대 가구의 순자산 순증액은 609만원에 불과 다른 연령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순자산 증가율은 30대(61.52%) > 40대(59.88%) > 60대(44.96%) > 50대(35.94%) > 20대(9.18%) 등으로 나타났는데, 순자산 증가율 역시 20대 가구는 9.18%로 매우 낮았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변화를 보면, 20대 가구의 증가율이 177.88%(41.20→114.50%)로 가장 높았는데, 2020년 기준 부채비율 114.50% 그 자체로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부채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현재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취약한 가구소득으로 보아 부채상환 능력이 나빠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30대(196.81%)와 40대(186.33%)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0%대에 육박하고 있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특히 30대 가구 부채비율

은 2010년 117.68%에서 2020년 196.81%로 79.13%p나 상승했다. 40대 가구의 경우 30대 가구보다 상승 폭은 낮은 편이었지만,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림]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가구주 특성(교육정도 &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및 격차가 2016년 이후 가중되고 있었는데,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태였다.

둘째,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부채 레버리지와 2016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이었다.

셋째, 20대 가구의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는 ‘N포 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는데, 20대 가구분포는 급감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가구보다 적은 가구소득으로 소득증가율도 가장 낮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대가로 1인당 소비지출액은 가장 많았다.

넷째, 부채증가율이 높았던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에 육박해, 주택 가격 하락 시 가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은 상환능력 중심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금융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재테크(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1.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가 지난 11년간(2010~2020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차 보고서(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는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 항목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차 보고서는 “가구주 성별 & 종사상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남녀 가구 간은 물론 상용노동자 및 임시일용직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 증가율은 남성 가구가 61.16%로 여성 가구 51.60%보다 높았고, 남녀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는 2010년 2,179만원에서 2020년 3,706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상용노동자 가구 경상소득 증가율은 62.41%로 임시일용직 가구 61.21%보다 높았고, 두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는 2,602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벌어졌다.

둘째, 고소득·고자산 가구 집단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였고,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켰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남성 가구 부채 순증액은 4,365만원으로 여성 가구 1,612만원보다 많았는데, 순자산 증가액 또한 남성 가구가 15,514만원으로 여성 가구 7,630만원보다 2.03배나 많았다.

상용노동자 가구 부채 순증액은 5,215만원으로 임시일용직 가구 1,474만원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순자산 순증액도 상용노동자 가구가 16,984만원으로 임시일용직 가구 8,413만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이었다. 주된 소득원천이 노동소득인 가구 집단의 노동소득 변화 크기가 총소득 변화를 좌우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를 보면, 남성 가구 노동소득 비중은 1.70%p(63.26→64.96%) 상승했으나, 여성 가구는 0.68%p(56.37→57.05%) 상승에 그쳤다. 동일 기간 남성 가구 노동소득은 1,353만원이 늘었고, 여성 가구 노동소득 순증액은 556만원에 불과했다.

상용노동자 노동소득 비중은 -4.65%p(91.64→86.98%) 줄었고, 임시일용직 가구 노동소득

은 -9.01%p(84.10→75.09%)나 줄었다. 그 결과 상용노동자 가구 노동소득 순증액은 1,849만원에 달했고, 임시일용직 순증액은 776만원에 불과했다.

넷째, 2016년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은 악화되고 있었으며, 소득 취약 가구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요구는 늘어나고 있었다. 여성은 물론 고령자·자영업자·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시장 내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임시일용직 가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던 임시일용직 가구 분포는 2016년 11.9%를 기점으로 하락을 멈추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라 평가받는 상용노동자 가구 비중은 2010년 37.4%에서 2016년 43.3%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 2020년 41.9%까지 떨어졌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 본업인 사업소득(증가율 6.28%, 증가액 246만원)보다 노동소득(증가율104.26%, 증가액 687만원)이 더 두드러지게 늘어났으며, 2020년 평균연령이 69.2세로 가장 많은 기타 가구 또한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 증가율(109.46%)과 증가액(569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보고서는 가구주 성별 그리고 종사상지위별 가구 집단의 소득 및 재무(자산 & 부채)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가구주 교육정도 및 연령대별로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지난 보고서의 쟁점 사항들에 집중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20) 분석보고서 이용 시 유의할 점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단위는 경제적 가족¹⁾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단위²⁾와는 조사 및 분석단위가 다르다.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의 표본은 1만 가구였으며, 2012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의 2만 가구이다.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전체 가구 통계와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유 가구 통계가 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각 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조사기준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로 조사되었다. 2018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소득 및 재무(자산&부채) 관련 모든 시계열 자료는 저자가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보고서와 통계표를 가지고 복원한 자료이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경우 관련 통계는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이후)로 시계열이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다. 조사항목이나 방법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이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 목적으로 조사된 동일 조사항목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든 연도는 기본적으로 조사연도를 의미한다. 실제 통계에서의 자산 및 부채 관련 항목들은 각 조사연도 3월말 기준(2010년만 2월말 기준) 자료이며, 소득 관련 항목들은 조사 전년도 기준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20년으로 표기된 각 소득 및 지출 관련 데이터는 2019년 소득 및 지출(2019년 1월~12월)을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중 일부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해당 항목의 경우 본 보고서 또한 2012년 이후로 시계열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주요 데이터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비목별 소비지출 내역, 비목별 비소비지출 내역' 등이 있다.

- 1) 1인 가구 및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떨어져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포함. 함께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동거인이나 시설에 장기간(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함.
- 2) 취업, 학업, 의무복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비혈연 동거가구원은 포함

2. 가구주 교육정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2020년 기준 가구주 학력별 가구 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이하 ‘대졸’로 표기) 가구가 40.1%, 고졸이 34.1%, 중졸 10.0%, 초졸 이하(이하 ‘초졸’로 표기) 가구가 15.7%였다. 대졸 가구분포는 2010년 34.8%에서 2020년 40.1%로 5.3%p 상승하였고, 그 외 가구집단은 모두 비중이 줄었는데, 초졸 가구가 19.0%에서 15.7%로 3.3%p 감소하여 가장 크게 줄었다.

2020년 가구주 평균연령은 초졸이 72.9세로 가장 많았고, 중졸(65.0세), 고졸(54.7세)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졸 가구주는 48.4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대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은 2.7명, 중졸은 2.1명, 초졸은 1.7명이었다. 가구주 평균연령은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고, 가구원 수는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다.

높은 교육열과 의무교육의 확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졸 이상 가구분포와 평균연령 증가 추세는 물론이고 가구원 수 감소 추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1] 가구주 교육정도별 가구분포 & 평균연령 변화

(단위 : %, 세)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0년 가구소득은 대졸(8,326만원), 고졸(5,401만원), 중졸(3,752만원), 초졸(2,322만원) 등으로,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도 많았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증가액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대졸 2,877만원(5,449→8,326만원), 고졸 1,780만원(3,621→5,401만원), 중졸 940만원(2,813→3,752만원), 초졸 798만원(1,524→2,322만원) 등이었으며, 해당 기간 연평균소득증가율 또한 초졸(4.61%) 가구를 제외하면 대졸(4.38%), 고졸(4.12%), 중졸(2.97%) 등으로 가구주 학력순이었다.

가구주 평균연령이 법정정년을 넘어선 초졸과 중졸 가구를 제외하고 보면³⁾, 대졸 가구의 연평균소득증가율이 고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세전소득 불균형은 더 심해졌는바, 대졸과 고졸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는 2010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5만원으로 늘어났다.

[표1] 가구주 교육정도별 경상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경상소득	증가율	경상소득	증가율	경상소득	증가율	경상소득	증가율
2010	1,524	-	2,813	-	3,621	-	5,449	-
2011	1,575	3.34	2,893	2.85	3,991	10.22	5,611	2.97
2012	1,733	10.07	3,067	6.02	4,116	3.12	6,095	8.62
2013	1,766	1.90	3,166	3.23	4,315	4.83	6,181	1.41
2014	1,735	-1.76	3,365	6.29	4,465	3.48	6,415	3.79
2015	1,820	4.90	3,402	1.10	4,568	2.31	6,541	1.96
2016	1,824	0.22	3,422	0.59	4,648	1.75	6,681	2.14
2017	2,331	27.80	3,759	9.85	5,097	9.66	7,473	11.85
2018	2,356	1.07	3,762	0.08	5,259	3.18	7,854	5.10
2019	2,316	-1.70	3,762	-	5,343	1.60	8,137	3.60
2020	2,322	0.24	3,752	-0.26	5,401	1.08	8,326	2.33
소득증감액	798		940		1,780		2,877	
연평균증가율	4.61		2.97		4.12		4.38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⁴⁾을 보면, 대졸 가구는 2010년 1,177만원에서 2020년 1,806만원으로 629만원이 늘어나, 연평균증가율은 4.46%에 달했다. 고졸 가구는 645만원에서 866만원으로 221만원이 늘어나, 연평균증가율은 3.04%였다. 증가액 및 증가율 모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대졸 가구가 더 높았다.

한편 연평균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던 초졸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액은 39만원(207→246만원)으로 중졸 가구 증가액 22만원(447만원 → 469만원)보다 많았다. 중졸 가구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은 불과 0.62%였다.

3) 2020년 기준 가구주 평균연령이 72.9세인 초졸 이하 가구와 65.0세인 중졸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법정 정년인 만 60세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졸과 고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소득 변화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4)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진지출, 비영리단체 이진지출, 이자비용 등(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분류 체계 중)

[표2] 가구주 교육정도별 비소비지출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2010	207	-	447	-	645	-	1,177	-
2011	215	4.11	423	-5.54	644	-0.11	1,166	-0.90
2012	188	-12.60	430	1.78	699	8.54	1,232	5.65
2013	210	11.70	493	14.65	729	4.29	1,282	4.06
2014	193	-8.10	476	-3.45	745	2.19	1,297	1.17
2015	196	1.55	446	-6.30	741	-0.54	1,312	1.16
2016	185	-5.61	444	-0.45	753	1.62	1,332	1.52
2017	249	34.59	457	2.93	795	5.58	1,505	12.99
2018	260	4.42	473	3.50	824	3.65	1,650	9.63
2019	251	-3.46	475	0.42	875	6.19	1,780	7.88
2020	246	-2.01	469	-1.30	866	-1.01	1,806	1.46
지출증감액	39		22		221		629	
연평균증가율	2.46		0.62		3.04		4.46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대졸 가구가 2,248만원(4,273→6,5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558만원(2,976→4,535만원), 중졸 918만원(2,365→3,283만원), 초졸 759만원(1,317→2,07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졸 가구의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이 고졸보다 1.42%p 높았음에도, 처분가능소득 연평균증가율은 4.37%로, 고졸 가구와 같게 나타났다. 더구나 2017년 이후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대졸 가구가 고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7년 이후 두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3] 가구주 교육정도별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2010	1,317	-	2,365	-	2,976	-	4,273	-
2011	1,360	3.23	2,470	4.43	3,347	12.46	4,445	4.04
2012	1,545	13.64	2,638	6.79	3,416	2.05	4,863	9.40
2013	1,556	0.71	2,673	1.33	3,586	4.98	4,899	0.74

가구주 교육정도별 &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2014	1,542	-0.90	2,890	8.12	3,721	3.76	5,118	4.47
2015	1,624	5.32	2,956	2.28	3,828	2.88	5,229	2.17
2016	1,639	0.92	2,978	0.74	3,895	1.75	5,348	2.28
2017	2,083	27.09	3,301	10.85	4,302	10.45	5,968	11.59
2018	2,096	0.62	3,288	-0.39	4,435	3.09	6,204	3.95
2019	2,065	-1.48	3,286	-0.06	4,468	0.74	6,357	2.47
2020	2,076	0.51	3,283	-0.08	4,535	1.49	6,520	2.57
소득증감액	759		918		1,558		2,248	
연평균증가율	4.97		3.40		4.37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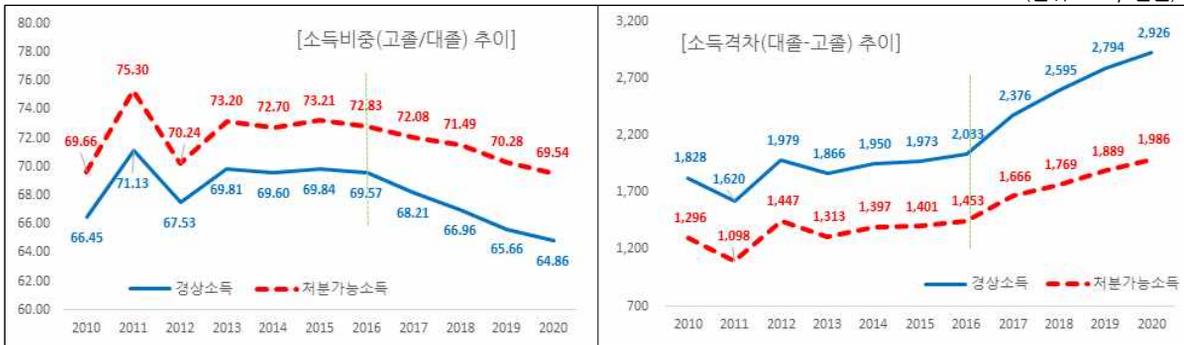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아래 그림은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비중(고졸/대졸) 및 소득 격차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대졸 가구 대비 고졸 가구 소득 비중을 보면, 경상소득(66.45→64.86%)과 처분가능소득(69.66→69.54) 모두 기준연도 대비 비중이 줄었다. 소득 격차는 꾸준히 늘어났는데, 경상소득 격차는 2010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6만원으로 벌어졌고,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1,296만원에서 1,986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이 지난 11년간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문제였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은 2016년 이후 고졸 가구소득 비중은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격차 또한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불평등 추세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2]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비중 및 격차 추이

(단위 :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를 보면, 가구주 평균연령이 노동시장에서 한 차 일할 연령대인 대졸(48.4세)과 고졸(54.7세) 가구는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

었으며, 노동시장 법정정년(만60세)을 넘는 중졸(65.0세)이나 초졸(72.9세)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많이 늘었다.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졸 가구의 소득원천별 변화(증가액, 증가율)는 노동소득(1,552만원, 35.83%), 재산소득(340만원, 123.54%), 공적이전소득(235만원, 145.96%), 사업소득(90만원, 7.04%), 사적이전소득(14만원, 28.41%) 등으로, 증가액으로는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이 높았다.

고졸 가구는 노동소득(876만원, 37.23%), 공적이전소득(261만원, 169.47%), 재산소득(164만원, 99.92%), 사적이전소득(32만원, 45.17%) 등이었으며, 사업소득(-48만원, -3.48%)은 기준연도 대비 감소했다.

가구 집단 모두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적이전소득은 중졸 가구가 증가율(196.22%)과 증가액(396만원) 모두 가장 많았고, 재산소득은 대졸 가구가 증가율(123.54%)과 증가액(340만원)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한편 소득원천 중 사업소득은 모든 가구 집단에서 가장 부진했는데, 대졸 가구만 7.04%(90만원) 증가했고, 고졸 -3.48%(-48만원), 중졸 -8.77%(-87만원), 초졸 -28.89%(-154만원) 가구 모두 역성장 추세를 보였다.

[표4] 가구주 교육정도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증양값
초졸이하	2012	1,733	701	532	97	249	154	1,030
	2020	2,322	929	378	200	616	199	1,512
	증감	589	228	-154	103	367	45	482
	증가율	33.96	32.53	-28.89	105.74	147.24	29.18	46.80
중졸	2012	3,067	1,608	992	155	202	109	2,400
	2020	3,752	1,829	905	274	598	146	2,858
	증감	685	221	-87	119	396	37	458
	증가율	22.34	13.73	-8.77	76.67	196.22	34.19	19.08
고졸	2012	4,116	2,352	1,375	164	154	71	3,400
	2020	5,401	3,228	1,327	328	415	103	4,584
	증감	1,285	876	-48	164	261	32	1,184
	증가율	31.21	37.23	-3.48	99.92	169.47	45.17	34.82
대졸이상	2012	6,095	4,332	1,276	275	161	51	5,000
	2020	8,326	5,884	1,366	615	396	65	6,851
	증감	2,231	1,552	90	340	235	14	1,851

가구주 교육정도별 &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증가율	36.61	35.83	7.04	123.54	145.96	28.41	37.02
--	-----	-------	-------	------	--------	--------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를 보면, 모든 가구집단에서 공적이전 소득과 재산소득 비중이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초졸 가구가 2012년 14.37%에서 2020년 26.52%로 12.15%p나 상승했으며, 중졸 9.36%p(6.59→15.95%), 고졸 3.94%(3.74→7.68%), 대졸 2.11%p(2.64→4.76%)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 비중도 최저 2.09%p(고졸)에서 최고 3.00%p(초졸)까지 상승했다.

대졸 가구 노동소득 비중은 2012년 71.07%에서 2020년 70.67%로 -0.40%p 줄었고, 고졸 가구 노동소득 비중은 2012년 57.14%에서 2020년 59.76%로 2.62%p 상승했지만, 2020년 대졸과 고졸 가구와의 노동소득 비중 격차는 10.91%p에 달했다.

소득원천 중 사업소득 비중은 초졸(-14.40%p), 중졸(-8.22%p), 고졸(-8.83%p), 대졸(-4.53%p) 등 모든 가구 집단에서 줄어들어, 자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고졸 가구 사업소득 비중은 기준연도 33.41%는 물론 2020년에도 24.57%로 가구 집단 중 가장 높았는데, 2020년 사업소득액은 1,327만원으로 대졸 가구(1,366만원)에 역전당했다.

[표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원천별 소득비중 변화

(단위 : %, %p)

구 분		전체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초졸이하	2012	100.00	40.45	30.70	5.60	14.37	8.89
	2020	100.00	40.02	16.30	8.60	26.52	8.57
	증감	-	-0.43	-14.40	3.00	12.15	-0.32
중 졸	2012	100.00	52.43	32.34	5.05	6.59	3.55
	2020	100.00	48.74	24.12	7.30	15.95	3.90
	증감	-	-3.69	-8.22	2.24	9.36	0.34
고 졸	2012	100.00	57.14	33.41	3.98	3.74	1.72
	2020	100.00	59.76	24.57	6.07	7.68	1.91
	증감	-	2.62	-8.83	2.09	3.94	0.18
대졸이상	2012	100.00	71.07	20.94	4.51	2.64	0.84
	2020	100.00	70.67	16.40	7.38	4.76	0.79
	증감	-	-0.40	-4.53	2.87	2.11	-0.0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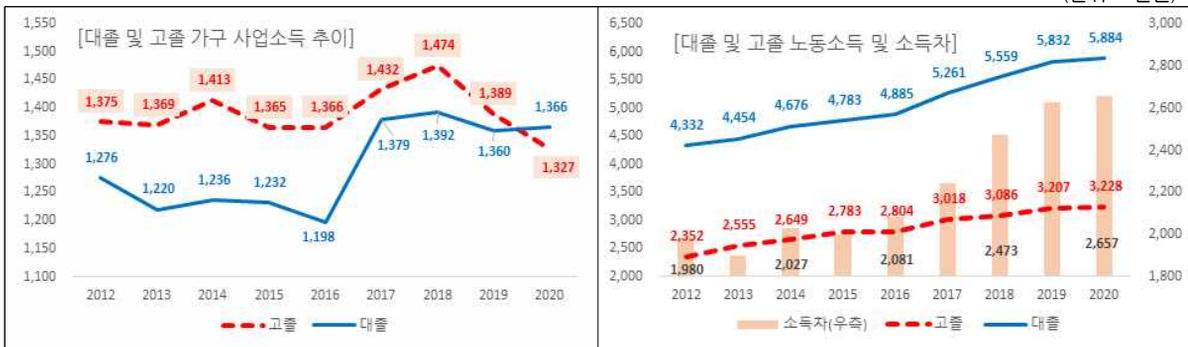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및 소득 비중 추이를 보면, 결국 대졸 가구

와 고졸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은 노동소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 몇 년 간 고졸 가구의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고 있는 것도 두 가구 간 소득 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2020년 기준 노동소득 비중은 대졸이 70.67%로 고졸 59.76%보다 10.91%p나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졸과 고졸 가구 간 노동소득 격차는 2012년 1980만원(대졸 4,332만원 - 고졸 2,352만원)에서 2020년 2,657만원(5,884만원 - 3,228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처럼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림3] 대졸 및 고졸 가구 사업소득 및 노동소득 현황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주) 소득차는 대졸 노동소득에서 고졸 노동소득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비지출 증감액을 보면, 대졸(512만원) > 고졸(282만원) > 초졸(157만원) > 중졸(62만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비지출증가율은 대졸(16.42%) > 초졸(14.73%) > 고졸(11.98%) > 중졸(3.50%) 등이었다.

비목별 소비지출 현황(증가율/증감액)을 살펴보면, 대졸 가구는 식료품(26.11% / 218만원), 의료비(22.37% / 34만원), 주거비(8.57% / 30만원), 통신비(1.50% / 3만원)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고, 교육비(-3.14% / -18만원)와 교통비(-6.86% / -24만원)는 지출이 줄었다.

고졸 가구는 의료비(41.41% / 53만원), 식료품(23.68% / 153만원), 주거비(4.21% / 13만원) 등의 지출은 늘었고, 통신비(-0.55%, -1만원), 교통비(-6.94%, -20만원), 교육비(-31.93%, -114만원) 등의 소비지출은 줄었다. 교육비 지출이 특히 많이 줄었다.

중졸 가구는 의료비(58.40% / 73만원), 식료품비(13.58% / 71만원), 주거비(5.47% / 14만원) 등이 늘었고, 통신비(-14.18% / -19만원), 교통비(-14.55% / -32만원), 교육비(-68.63% / -105만원) 등은 줄었다. 중졸 가구 역시 교육비 지출이 크게 줄었다.

초졸 가구는 의료비(63.89% / 69만원), 식료품(22.12% / 75만원), 주거비(16.20% / 29만

원) 등의 지출은 늘었고, 통신비(-5.56% / -4만원), 교통비(-7.27% / -8만원), 교육비(-64.58% / -31만원) 등은 줄었다.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았으며, 교육비 지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분석 기간(2012~2020년) 중 평균연령이 법정정년과 맞물렸던 중졸 가구의 경우 소득증가율(22.34% / 685만원)과 비교할 때 소비지출증가율(3.50% / 62만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은퇴 시점과 맞물려 소비지출을 극도로 자제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6] 가구주 교육정도별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소비지출계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초졸이하	2012	1,066	339	179	48	108	110	72	211
	2020	1,223	414	208	17	177	102	68	237
	증감	157	75	29	-31	69	-8	-4	26
	증가율	14.73	22.12	16.20	-64.58	63.89	-7.27	-5.56	12.32
중졸	2012	1,772	523	256	153	125	220	134	361
	2020	1,834	594	270	48	198	188	115	421
	증감	62	71	14	-105	73	-32	-19	60
	증가율	3.50	13.58	5.47	-68.63	58.40	-14.55	-14.18	16.62
고졸	2012	2,354	646	309	357	128	288	182	443
	2020	2,636	799	322	243	181	268	181	643
	증감	282	153	13	-114	53	-20	-1	200
	증가율	11.98	23.68	4.21	-31.93	41.41	-6.94	-0.55	45.15
대졸이상	2012	3,119	835	350	574	152	350	200	658
	2020	3,631	1,053	380	556	186	326	203	927
	증감	512	218	30	-18	34	-24	3	269
	증가율	16.42	26.11	8.57	-3.14	22.37	-6.86	1.50	40.88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해당연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지출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소비지출증가율은 가구 소비지출증가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구 소비지출증가율은 대졸(16.42%) 가구가 가장 높았었지만, 1인당 소비지출증가율은 초졸(30.52%) > 고졸(28.00%) > 중졸(26.21%) > 대졸(20.21%)의 순으로, 대졸 가구가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액은 대졸(1,172만원), 고졸(972만원), 중졸(860만원), 초졸(732만원) 등이었는데, 소득 변화와 소비지출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졸 가구 대비 다른 가구 집단의 1인당 소비지출액 비중 추이를 산출해보았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대졸 가구 대비 1인당 소비지출액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가구는 5.04%p(77.91→82.95%), 중졸 가구는 3.48%p(69.92→73.40%), 초졸 가구는 4.93%p(57.56→62.49%) 등 모두 상승했다. 결국 1인당 소비지출액 변화로 판단하면, 대졸 가구 소비지출이 다른 가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4] 1인당 소비지출액 및 대졸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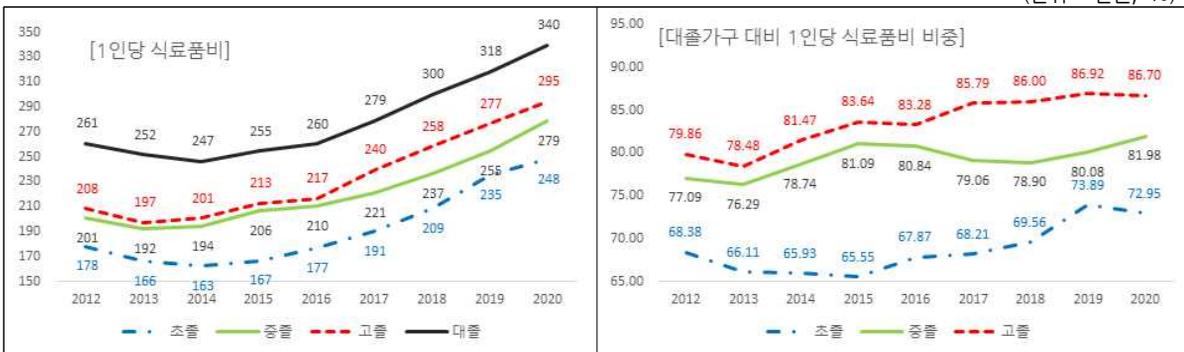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소비지출액 = 각년도 소비지출액 / 각년도 가구원 수

2020년 1인당 식료품비는 대졸(340만원), 고졸(295만원), 중졸(279만원), 초졸(248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1인당 식료품비 지출도 많아는데, 결과적으로 학력이 인간의 식생활 수준마저 좌우하고 있었다. 대졸 가구 대비 가구 집단별 1인당 식료품비 비중 추이를 보면, 1인당 소비지출액 비중 추이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가구집단 모두 2012년과 2020년 사이 비중이 증가했다.

[그림5] 1인당 식료품비 및 대졸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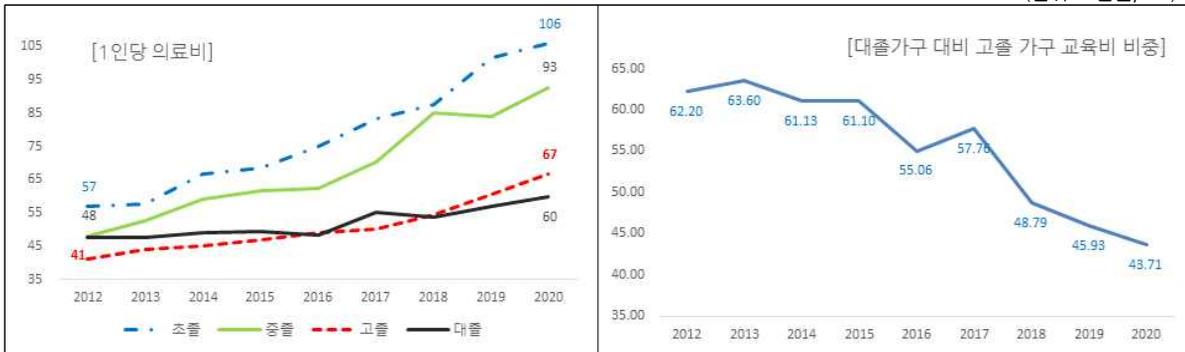
주) 1인당 식료품비 = 각년도 식료품비 지출액 / 각년도 가구원 수

2020년 기준 1인당 의료비지출액은 초졸(106만원, 평균연령 72.9세), 중졸(93만원 / 65.0세), 고졸(67만원 / 54.7세), 대졸(60만원 / 48.4세) 등으로,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액도 많았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 또한 초졸(86.45%), 중졸(93.15%) 가구에서 높았으며, 대졸 가구 증가율은 26.37%에 머물렀다.

2020년 고졸 가구주 평균연령은 54.7세로 유자녀 가구의 경우 여전히 교육비 지출이 불가피한 연령대라 할 수 있는데, 대졸 가구 대비 고졸 가구 교육비 비중은 2012년 62.20%에서 2020년 43.71%까지 하락했다. 2020년 고졸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대졸 가구원 수 3.1명의 87.1% 수준임을 고려하면, 고졸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소득 격차가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고졸 가구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주어진 교육 기회가 미래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6] 1인당 의료비 및 대졸 가구 대비 고졸 가구 교육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의료비 = 각년도 의료비 / 각년도 가구원 수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가구별 저축가능액(소득-소비·비소비지출) 순증액은, 대졸 가구 1,145만원(1,744→2,889만원) > 고졸 836만원(1,063→1,899만원) > 중졸 584만원(865→1,449만원) > 초졸 374만원(479→853만원) 등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은 고학력 가구일수록 저축가능액도 더 많이 늘어났다. 학력에 따른 노동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한 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7] 가구주 교육정보별 소득 및 지출액, 저축가능액 추이

(단위 : 만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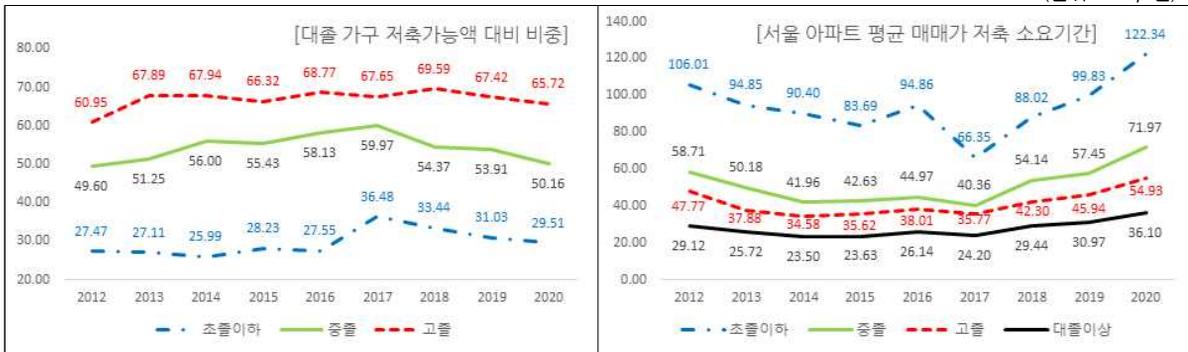
구 분	소득액(a)	소비지출 (b)	비소비지출 ©	저축가능액 (a-b-c)	지출액 /소득액	저축가능액 /소득액
-----	--------	----------	---------	---------------	----------	------------

초졸 이하	2012	1,733	1,066	188	479	72.36	27.64
	2020	2,322	1,223	246	853	63.28	36.72
	증감	589	157	58	374	(9.08)	9.08
	증가율	33.96	14.73	30.85	77.98	-12.55	32.86
중졸	2012	3,067	1,772	430	865	71.80	28.20
	2020	3,752	1,834	469	1,449	61.38	38.62
	증감	685	62	39	584	(10.42)	10.42
	증가율	22.34	3.50	9.07	67.54	-14.51	36.95
고졸	2012	4,116	2,354	699	1,063	74.17	25.83
	2020	5,401	2,636	866	1,899	64.84	35.16
	증감	1,285	282	167	836	(9.33)	9.33
	증가율	31.21	11.98	23.89	78.62	-12.58	36.13
대졸 이상	2012	6,095	3,119	1,232	1,744	71.39	28.61
	2020	8,326	3,631	1,806	2,889	65.30	34.70
	증감	2,231	512	574	1,145	(6.09)	6.09
	증가율	36.61	16.42	46.59	65.67	-8.53	21.28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그림] 대졸 가구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저축 소요기간

(단위 : %, 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저축 소요기간(년) = 각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 각년도 가구주 교육정도별 저축가능액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대졸 가구 대비 가구주 학력별 저축가능액 비중 추이를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졸(4.77%p), 중졸(0.56%p), 초졸(2.04%p) 가구 모두 기준연도 대비 비중이 상승했다. 하지만 2017~2018년을 기점으로 모든 가구 집단의 비중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학력별 소득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졸 가구가 저축가능액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2010년에는 29.12년 필요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2020년엔 36.10년이 필요했다. 2020년 기준 고졸 가구는 54.93년이 필요했고, 중졸 가구는 71.97년을 필요로 했다. 현행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노동자가 일한다고 가정하면,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야 40년 정도이기 때문에, 현 조

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대출 가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내 집 장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표8] 가구주 교육정도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중앙값
초졸이하	2012	1,733	673	1,870	3,259	4,942	9,551	1,030
	2020	2,322	1,053	2,681	4,535	6,914	11,608	1,512
	증감	589	380	811	1,276	1,972	2,057	482
	증가율	33.99	56.46	43.37	39.15	39.90	21.54	46.80
중졸	2012	3,067	860	1,951	3,273	4,896	8,929	2,400
	2020	3,752	1,237	2,695	4,588	7,004	11,472	2,858
	증감	685	377	744	1,315	2,108	2,543	458
	증가율	22.33	43.84	38.13	40.18	43.06	28.48	19.08
고졸	2012	4,116	900	2,023	3,333	4,984	9,545	3,400
	2020	5,401	1,250	2,780	4,675	7,114	12,454	4,584
	증감	1,285	350	757	1,342	2,130	2,909	1,184
	증가율	31.22	38.89	37.42	40.26	42.74	30.48	34.82
대출이상	2012	6,095	874	2,068	3,405	5,126	10,356	5,000
	2020	8,326	1,246	2,828	4,712	7,170	14,595	6,851
	증감	2,231	372	760	1,307	2,044	4,239	1,851
	증가율	36.60	42.56	36.75	38.38	39.88	40.93	37.0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대출 가구의 경우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증가율은 1분위(42.56%) > 5분위(40.93%) > 4분위(39.88%) > 3분위(38.38%) > 2분위(36.75%)의 순이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증가율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소득 5분위배율 또한 11.85배에서 11.71배로 큰 변화는 없었다. 평균소득 증가율(36.60%)과 중위소득 증가율(37.02%)도 사실상 차이가 없어, 소득 상하위 50% 가구 집단간 소득 격차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졸 가구의 경우 4분위(42.74%) > 3분위(40.26%) > 1분위(38.89%) > 2분위(37.42%) > 5분위(30.48%)의 순으로, 소득 5분위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분위 소득증가율이 5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10.61배에서 2020년 9.96배로 낮아졌다. 중위소득 증가율(34.82%)도 평균소득 증가율(31.22%)보다 3.6%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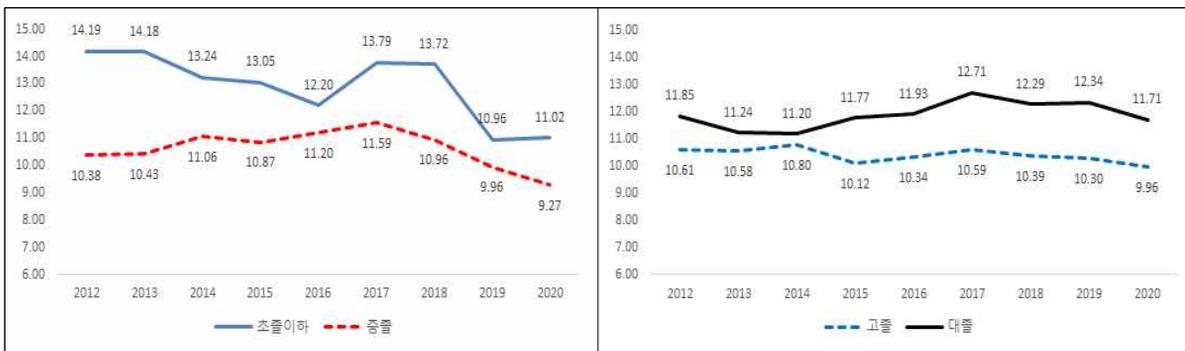
중졸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분위(43.84%)가 5분위(28.48%)보다 15.36%p나 높아, 소득 5분위배율은 2012년 10.38배에서 2020년 9.27배로 하락했다. 하지만 중위소득 증가율(19.08%)은 평균소득 증가율(22.33%)보다 낮게 나타나, 소득 상·하위 5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개선되지 못했다.

초졸 가구의 경우 가구 집단 내 소득 불평등 개선 정도가 가장 컸었는데, 소득증가율은 1분위(56.46%) > 2분위(43.37%) > 4분위(39.90%) > 3분위(39.15%) > 5분위(21.54%)의 순으로, 소득 하위 1~2분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14.19배에서 2020년 11.02배로 크게 개선되었다. 중위소득 증가율(46.80%)도 평균소득 증가율(33.99%)보다 높아 상·하위 50% 가구 간의 소득 격차도 줄었다. 이처럼 초졸 가구 집단 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초졸 가구가 노동소득 비중은 40.2%로 가장 낮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6.52%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림8] 가구주 교육정도별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단위 : 배)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 가구 재무(자산&부채)상태 변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총자산 증가율을 보면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증가율도 높았는데, 대졸(64.23%/40,258→66,115만원) > 고졸(49.75%/24,116→36,114만원) > 중졸(30.18%/21,818→28,403만원) > 초졸(24.17%/14,615→18,14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순증액 또한 대졸(25,857만원), 고졸(11,998만원), 중졸(6,585만원), 초졸(3,532만원)의 순으로 많았다.

2020년 기준 자산액은 대졸이 66,115만원으로 고졸 36,114만원의 1.83배 달했는데, 대졸 가구 자산 순증액은 25,857만원으로 고졸 가구 순증액 11,998만원의 2.16배로,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자산 격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20년 사이 대졸 가구 총자산 대

비 여타 가구 집단의 총자산 비중 변화를 보면, 고졸(59.90→54.59%, ↓5.31%p), 중졸(54.20→42.93%, ↓11.27%p), 초졸(36.30→27.43%, ↓8.87%p) 등으로 가구주 학력별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

[표9] 가구주 교육정도별 재무상태 변화

(단위 : 만원, %)

구 분		순자산	자산		부채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초졸이하	2010	12,781	14,615	2,005	12,610	1,834	1,247	587
	2020	16,359	18,147	3,057	15,090	1,788	1,250	538
	증감액	3,578	3,532	1,052	2,480	-46	3	-49
	증가율	27.99	24.17	52.47	19.67	-2.51	0.24	-8.35
중졸	2010	18,949	21,818	3,411	18,407	2,870	1,939	931
	2020	24,682	28,403	5,400	23,003	3,721	2,527	1,194
	증감액	5,733	6,585	1,989	4,596	851	588	263
	증가율	30.25	30.18	58.31	24.97	29.65	30.32	28.25
고졸	2010	20,138	24,116	5,118	18,998	3,978	2,724	1,254
	2020	29,477	36,114	8,234	27,881	6,638	5,110	1,528
	증감액	9,339	11,998	3,116	8,883	2,660	2,386	274
	증가율	46.38	49.75	60.88	46.76	66.87	87.59	21.85
대졸이상	2010	32,933	40,258	9,544	30,714	7,326	4,995	2,331
	2020	52,808	66,115	16,637	49,478	13,307	9,614	3,693
	증감액	19,875	25,857	7,093	18,764	5,981	4,619	1,362
	증가율	60.35	64.23	74.32	61.09	81.64	92.47	58.43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0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6만원으로 1.6배가 늘었고, 자산 격차는 16,143만원에서 30,001만원으로 1.86배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소득 및 자산 모두 2016년을 기점으로 격차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6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시작하던 해였다.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2010년 1월 53,99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은, 이후 48,000만원대에서 54,000만원대의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2016년 1월 55,282만원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후 급등세를 연출하였고, 2020년 12월 104,299만원까지 상승했다. 대졸 가구의 소득(특히

재산소득)이나 총자산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9] 대출 및 고졸 가구 간 소득·자산 격차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그림10]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추이



자료) KB주택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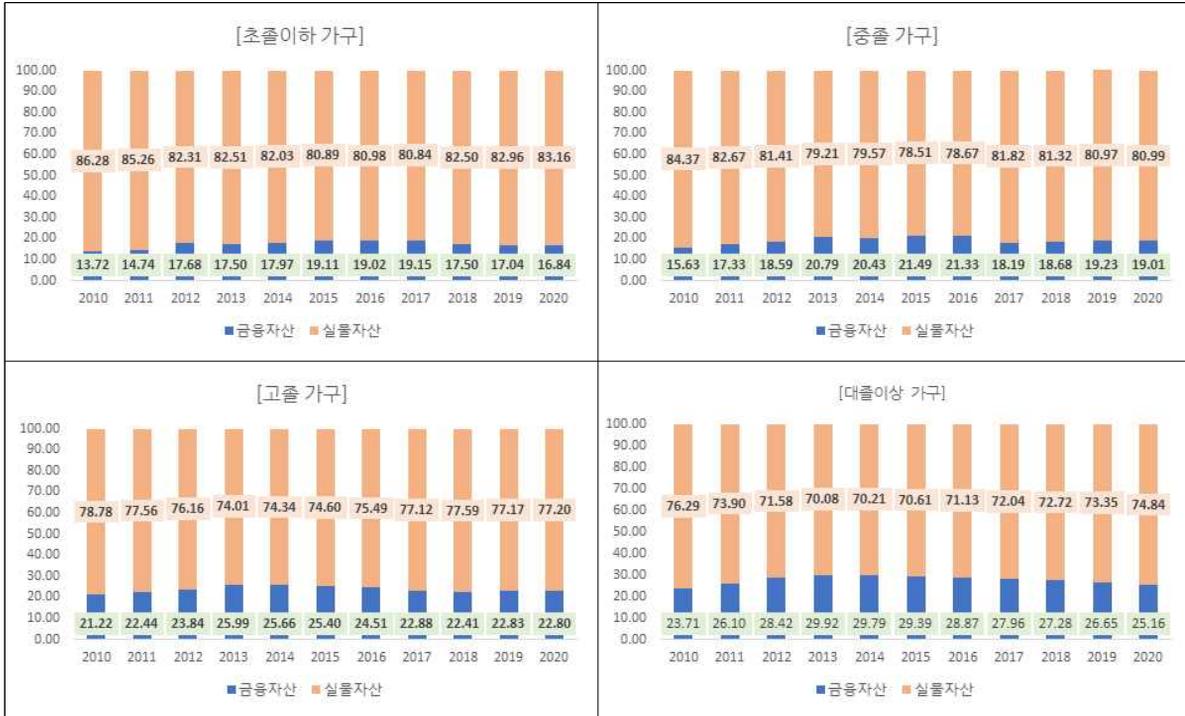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실물자산 비중 변화는 초졸(86.28→83.16, -3.12%p), 중졸(84.37→80.99%, -3.38%p) 고졸(78.78→77.20%, -1.58%p), 대출(76.29→74.84%, -1.45%p)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실물자산 비중이 1~3%p 줄고, 그만큼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초졸과 중졸 가구는 실물자산 비중이 80%대를 상회하고 있어, 가구 내 유

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경제·금융위기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력이 부족한 상태라 판단된다.

[그림11] 가구주 교육정도별 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지난 보고서(가구주 성별 & 종사상지위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보유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채 또한 많이 증가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보유 부채 변화를 보면, 부채 순증액은 대출이 5,981만원(7,326→13,307만원), 고졸 2,660만원(3,978→6,638만원), 중졸 851만원(2,870→3,721만원) 등이었고, 초졸 가구는 -46만원(1,834→1,788만원) 줄었다.

부채증가율은 대출(81.64%), 고졸(66.85%), 중졸(29.65%), 초졸(-2.51%) 등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증가율 대출(52.80%), 고졸(49.14%), 중졸(33.40%), 초졸(52.37%) 등과 비교하면, 대출과 고졸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출 가구 부채증가율은 81.65%로 매우 높았는데, 금융부채 증가율 또한 92.47%(4,995→9,614만원)로 가장 높았다.

한편 가구 집단 모두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부채증가율보다 높았다. 대출 가구 원리금상환액은 2010년 742만원에서 2020년 1,843만원으로 1,100만원이 늘어나, 148.24%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졸 가구는 2010년 491만원에서 2020년 1,061만원으로 570만원이 늘어나 116.01% 증가했다.

중졸과 초졸 가구도 2010년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 들어 부채가 줄어들면서, 원리금상환액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표10] 가구주 교육정도별 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부 채				원리금상환액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2010	1,834	2,870	3,978	7,326	123	356	491	742
2011	2,077	3,667	4,486	7,974	215	408	609	851
2012	1,761	3,546	5,274	8,256	181	434	647	821
2013	1,854	3,695	5,260	8,760	202	451	721	958
2014	1,801	4,118	5,505	8,864	222	593	817	1,162
2015	2,043	3,945	5,705	9,129	235	657	921	1,328
2016	1,775	4,019	6,129	9,906	245	572	1,062	1,526
2017	1,939	4,187	6,291	10,555	245	634	1,054	1,400
2018	1,937	4,206	6,555	11,681	260	545	1,087	1,573
2019	1,760	3,789	6,474	12,593	272	642	1,054	1,765
2020	1,788	3,721	6,638	13,307	215	519	1,061	1,843
증감	-46	851	2,660	5,981	92	163	570	1,100
증가율	-2.50	29.67	66.86	81.65	74.57	45.93	116.01	148.24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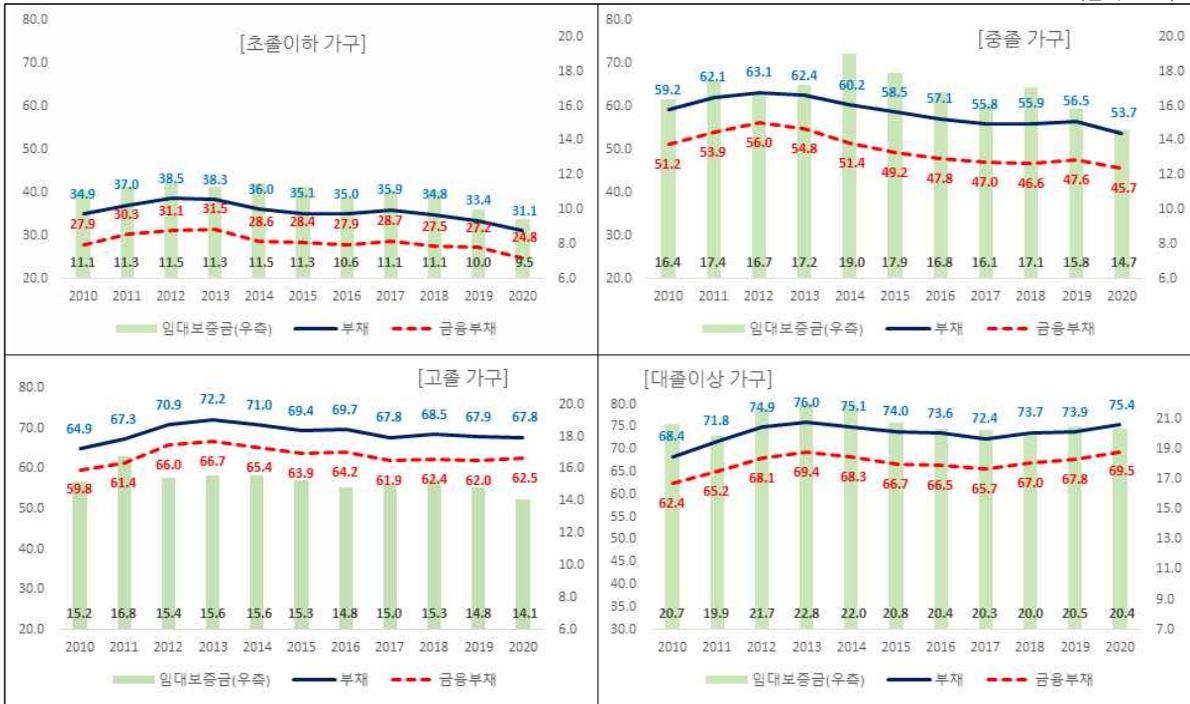
가구주 평균연령은 낮고 소득은 높을수록 부채증가율도 높았지만, 가구분포 또한 많이 늘어났다. 대졸 부채보유 가구 비중은 2010년 68.4%에서 2020년 75.4%로 7.0%p 상승하였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62.4%에서 69.5%로 7.1%p 늘어났다.

고졸 부채보유 가구 비중은 64.9%에서 67.8%로 2.9%p 상승했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59.8%에서 62.5%로 2.7%p 늘어났다.

반면 중졸과 초졸 가구는 부채 보유 가구는 물론 금융부채 보유 가구 또한 기준연도 대비 줄어들었다.

[그림12] 가구주 교육정도별 부채, 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 분포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변화를 보면 총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증가율이 높았는데, 대졸(60.35%) > 고졸(46.38%) > 중졸(30.25%) > 초졸(27.99%) 가구 등이었다. 순자산 순증액은 대졸 19,875만원(32,933→52,808만원), 고졸 9,339만원(20,138→29,477만원), 중졸 5,733만원(18,949→24,682만원), 초졸 3,578만원(12,781→16,35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졸 가구 순자산이 고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두 가구 간 순자산 격차는 2010년 12,795만원에서 2020년 23,331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순자산 격차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는 가계부채로, 순자산이 더 많이 늘어난 대졸 가구의 부채 순증액은 5,981만원으로 고졸 가구 2,660만원보다 2.25배나 더 많았는데,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자산 증식에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학력별 가구 집단 중 가장 고소득·고자산 가구 집단인 대졸 가구를 기준으로 여타 가구 집단의 부채 및 순자산 비중을 통해 가구 집단 간 순자산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졸 가구 부채 대비 고졸 가구의 부채 비중을 보면 2010년 54.30%에서 2020년 49.88%로 -4.42%p 하락했다. 중졸 가구 또한 39.17%에서 27.96%로 11.21%p 줄었다. 해당 기간 고졸(66.87%) 및 중졸(29.65%) 가구 모두 부채증가율이 상당했음에도, 대졸 가구 대

비 부채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대출 가구 부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 대비 고졸 가구의 순자산 비중은 2010년 61.15%에서 2020년 55.82%로 -5.33%p 하락했으며, 중졸 가구 순자산 비중도 57.54%에서 46.74%로 -10.8%p나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를 동원했던 대출 가구가 순자산 또한 크게 늘어, 부채를 활용하여 재산을 늘렸음을 알 수 있었고, 순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그림13] 대출 가구 대비 부채 및 순자산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3) 가구 재무건전성 추이

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정도별 가구 집단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산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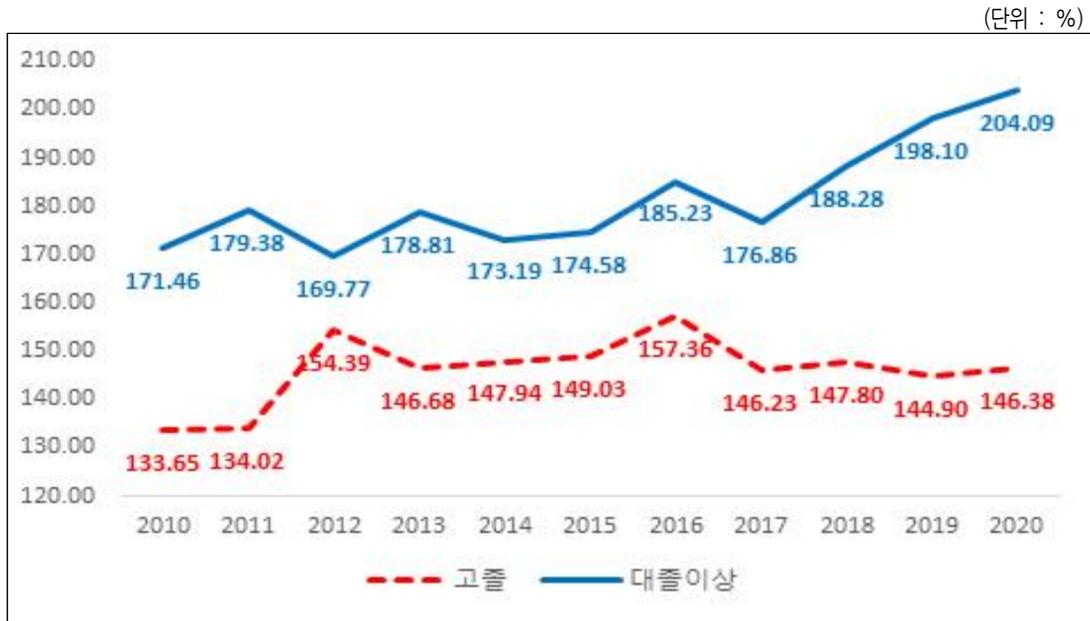
부채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대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0년 171.46%에서 2020년 204.09%로 32.63%p가 늘어났다. 2020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204.09%는 국내외적으로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이 분명하다.⁵⁾

고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33.65%에서 146.38%로 12.72%p가 상승했다.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6년 157.36% 이후 비율이 더 오르지 않고 있다. 초졸 가구와

5)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만으로 가계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나라지표’에서 제공되는 OECD 기준에 의한 2019년 주요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한국이 190.6%로 스페인(105.0%), 프랑스(122.1%), 영국(142.1%), 핀란드(148.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졸 가구의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각 86.15%와 113.3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초졸 가구는 -53.11%p 하락했고, 중졸 가구는 -7.99%p 하락했다.

[그림14] 고졸 및 대졸 가구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가계 유동성 변화를 보기 위하여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을 산출하였다. 대졸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0년 17.34%에서 2020년 28.26%로 10.89%p가 늘어나, 가계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증가율(36.61%) 대비 낮은 소비증가율(16.42%)을 보였던 원인 중의 하나가 유동성 부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 가구는 16.50%에서 23.40%로 6.90%p가 상승, 대졸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나빠졌다. 초졸과 중졸 가구는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표11] 가구주 교육정도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 추이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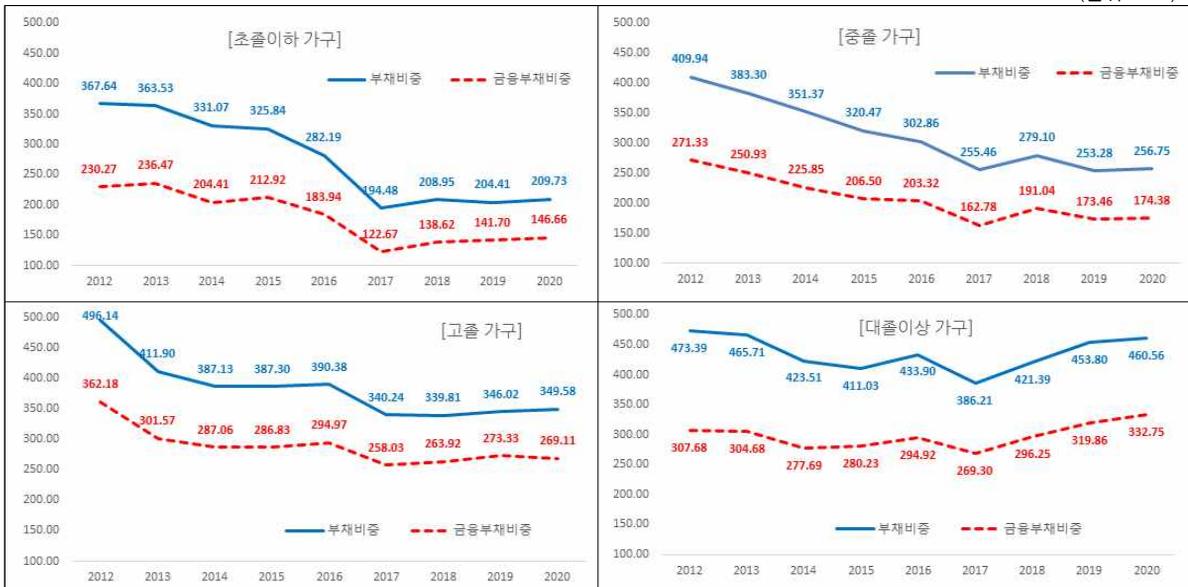
구 분	부채 / 처분가능소득				원리금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2010	139.25	121.31	133.65	171.46	9.36	0.15	16.50	17.37

2011	152.78	148.45	134.02	179.38	15.80	0.17	18.20	19.14
2012	113.98	134.42	154.39	169.77	11.72	0.16	18.94	16.88
2013	119.15	138.23	146.68	178.81	12.98	0.17	20.11	19.56
2014	116.80	142.49	147.94	173.19	14.40	0.21	21.96	22.70
2015	125.80	133.46	149.03	174.58	14.47	0.22	24.06	25.40
2016	108.30	134.96	157.36	185.23	14.95	0.19	27.27	28.53
2017	93.09	126.84	146.23	176.86	11.76	0.19	24.50	23.46
2018	92.41	127.92	147.80	188.28	12.40	0.17	24.51	25.35
2019	85.23	115.31	144.90	198.10	13.17	0.20	23.59	27.76
2020	86.15	113.33	146.38	204.09	10.36	0.16	23.40	28.26
증감	-53.11	-7.99	12.72	32.63	1.01	0.01	6.90	10.89
증가율	-38.14	-6.58	9.52	19.03	10.76	5.13	41.78	62.66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그림15] 가구주 교육정도별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및 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다음은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남은 저축가능액으로 부채 규모를 분석하였다. 대졸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중은 2012년 473.39%에서 2017년 386.21%까지 하락했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20년 460.56%까지 재상승한 상태다. 금융부채 비중은 2010년 307.68%에서 2020년 332.75%로 8.15% 증가했는

데, 금융부채 비중 또한 2017년 이후 재상승하고 있어, 대출 가구의 유동성은 나빠지고 있는 상태였다.

고졸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중은 496.14%에서 349.58%로 -29.54% 하락했다. 금융부채 비중은 362.18%에서 269.11%로 -25.70% 떨어졌다. 초졸과 중졸 가구 대비 하락 폭은 작았지만, 2017년 이후 회복하고 있어, 대출 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이었다.

2020년 기준 중졸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은 256.75%였고, 초졸 가구는 209.73%로 추세가 하향 안정화된 모습이었으며, 금융부채 비율 또한 유사했다. 가구소득이나 부채 규모의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한 가계 유동성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12] 가구주 교육정도별 재무건전성 추이

(단위 : %, %p)

구 분	부채 / 순자산				금융부채 / 금융자산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2010	14.35	15.14	19.75	22.24	62.20	56.84	53.23	52.34
2011	15.75	18.58	21.01	22.78	62.95	60.63	54.81	48.72
2012	13.00	17.05	22.01	21.17	40.76	51.87	55.25	39.96
2013	13.07	18.16	22.82	23.27	42.99	48.40	52.34	41.29
2014	13.13	18.94	22.97	23.27	39.87	50.10	53.98	41.55
2015	14.53	17.78	23.21	23.04	43.37	45.26	54.93	43.43
2016	12.16	17.87	24.04	23.64	37.15	47.72	59.75	45.01
2017	12.30	18.17	23.54	23.90	36.08	53.88	63.17	48.11
2018	11.56	17.13	22.72	24.18	39.27	53.58	64.17	50.16
2019	11.08	15.80	22.31	24.63	40.57	48.60	63.13	52.26
2020	10.93	15.08	22.52	25.20	40.90	46.80	62.06	57.79
증감	-3.42	-0.07	2.76	2.95	-21.30	-10.04	8.83	5.4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보기 위해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위의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대출과 고졸 가구의 재무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으며, 중졸과 초졸 가구는 개선되고 있는 상태였다.

대출 가구의 경우 순자산 순증액이 가장 많았음에도 부채증가율 또한 가장 높았던 결과,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0년 22.24%에서 2020년 25.20%로 2.95%p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또한 52.34%에서 57.79%로 5.45%p 늘어났다.

고졸 가구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9.75%에서 22.52%로 2.76%p 증가했으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3.24%에서 62.06%로 8.83%p 상승했는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구 집단 중 고졸 가구가 가장 높은 상태였다. 고졸 가구는 대출 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초졸 가구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3.42%p(14.35% → 10.93%) 줄었고, 2010년 기준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기간 중 비율이 -21.30%p(62.20→40.90%) 하락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가구의 부채가 기준 연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중졸 가구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07%p,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04%p 하락했다.

3.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1)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가구주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이하 '60대 가구') 분포는 2010년 28.4%에서 2020년 40.1%로 11.7%p 증가했다. 평균연령이 50~59세인 가구(이하 '50대 가구') 분포는 20.8%에서 24.5%로, 기준연도인 2010년과 비교해서는 17.6% 늘어났지만, 2015년 25.5%로 최고치를 보인 뒤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2020년 현재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60대 가구가 유일했다. 평균연령이 40~49세인 가구(이하 '40대 가구') 분포는 2010년 25.6%에서 2020년 21.9%로 -3.7%p 줄었고, 30~39세인 가구(이하 '30대 가구')는 하락 폭이 -8.3%p(19.9→11.6%)에 달했다. 30세 미만인 가구(이하 '20대 가구') 분포는 -2.7%p(5.3→2.0%) 감소했다.

연령대별 가구분포 변화 추이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출산·청년층의 결혼 포기,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들이었다.

2020년 기준 60대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명이었으며, 50대 가구는 3.0명, 40대 가구는 3.4명, 30대 가구는 2.9명 그리고 20대 가구는 1.6명이었다. 한편 2020년 기준 60대 가구의 평균연령은 70.5세였으며, 50대 가구는 54.5세, 40대 가구는 44.8세, 30대 가구는 35.7세 그리고 20대 가구는 26.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6]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분포 추이 및 증가율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0년 현재 경상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가구였는데, 2013년에서 2018년까지는

50대 가구의 경상소득이 가장 많았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 증가액은 50대가 2,904만원(4,645→7,549만원), 40대 2,870만원(4,778→7,648만원), 30대 2,162만원(4,184→6,346만원), 60대 1,853만원(2,136→3,989만원), 20대 826만원(2,707→3,53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20대 경상소득은 3,533만원으로 60대 가구(3,989만원)보다 적었으며, 40대 경상소득 7,648만원 대비 46.2% 수준에 불과했다.

경상소득 연평균증가율은 60대(6.54%) > 50대(5.05%) > 40대(4.86%) > 30대(4.27%) > 20대(2.8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 매우 낮았다.

[표13] 가구주 연령대별 경상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경상소득	증가율	경상소득	증가율	경상소득	증가율	경상소득	증가율	경상소득	증가율
2010	2,707	-	4,184	-	4,778	-	4,645	-	2,136	-
2011	2,946	8.81	4,304	2.85	5,148	7.74	5,024	8.16	2,265	6.06
2012	2,879	-2.26	4,601	6.91	5,345	3.82	5,196	3.42	2,345	3.52
2013	3,030	5.24	4,801	4.35	5,391	0.86	5,564	7.08	2,588	10.36
2014	3,407	12.44	4,976	3.65	5,525	2.49	5,829	4.76	2,703	4.44
2015	3,406	-0.03	5,075	1.99	5,677	2.75	5,967	2.37	2,891	6.96
2016	3,266	-4.11	5,153	1.54	5,928	4.42	6,106	2.33	3,027	4.70
2017	3,270	0.12	5,485	6.44	6,616	11.61	7,061	15.64	3,592	18.67
2018	3,533	8.04	5,757	4.96	7,108	7.44	7,292	3.27	3,759	4.65
2019	3,720	5.29	5,982	3.91	7,425	4.46	7,407	1.58	3,877	3.14
2020	3,533	-5.03	6,346	6.08	7,648	3.01	7,549	1.92	3,989	2.89
증감액	826		2,162		2,870		2,904		1,853	
연평균 증가율	2.85		4.27		4.86		5.05		6.54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 증가액은 40대가 598만원(971→1,5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75만원(922→1,496만원), 30대 421만원(802→1,223만원), 60대 249만원(362→611만원), 20대 60만원(435→495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은 60대(5.68%) > 50대(5.06%) > 40대(5.01%) > 30대(4.38%) > 20대(1.61%)의 순으로, 경상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비소비지출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14] 가구주 연령대별 비소비지출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2010	435	-	802	-	971	-	922	-	362	-
2011	400	-8.05	772	-3.72	965	-0.57	973	5.61	370	2.16
2012	383	-4.18	822	6.49	1,023	6.00	975	0.16	338	-8.57
2013	430	12.27	865	5.23	1,067	4.30	1,078	10.56	398	17.75
2014	444	3.26	891	3.01	1,073	0.56	1,084	0.56	402	1.01
2015	472	6.31	908	1.91	1,074	0.09	1,096	1.11	418	3.98
2016	443	-6.14	911	0.33	1,148	6.89	1,118	2.01	425	1.67
2017	455	2.71	994	9.11	1,272	10.80	1,268	13.42	513	20.71
2018	483	6.15	1,067	7.34	1,408	10.69	1,385	9.23	557	8.58
2019	550	13.87	1,133	6.19	1,549	10.01	1,468	5.99	599	7.54
2020	495	-10.05	1,223	7.95	1,569	1.29	1,496	1.92	611	1.97
증감액	60		421		598		575		249	
연평균 증가율	1.61		4.38		5.01		5.06		5.68	

자료)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경상소득과 마찬가지로 2020년 현재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가구로 6,079만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50대가 2,329원(3,724→6,0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272만원(3,808→6,079만원), 30대 1,740만원(3,383→5,123만원), 60대 1,604만원(1,774→3,378만원), 20대 766만원(2,272→3,038만원)의 순이었다.

처분가능소득 연평균증가율은 60대(6.74%) > 50대(5.07%) > 40대(4.84%) > 30대(4.25%) > 20대(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순증액이나 증가율 추이 또한 경상소득 변화와 유사했다. 결과적으로 세전소득은 물론 세후소득 모두 20대 가구가 가장 적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5]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2010	2,272	-	3,383	-	3,808	-	3,724	-	1,774	-
2011	2,546	12.04	3,532	4.41	4,183	9.86	4,051	8.78	1,896	6.85
2012	2,495	-2.00	3,779	7.00	4,322	3.32	4,221	4.20	2,007	5.88

2013	2,600	4.21	3,935	4.13	4,324	0.05	4,486	6.28	2,190	9.12
2014	2,963	13.96	4,085	3.81	4,453	2.98	4,745	5.77	2,301	5.07
2015	2,934	-0.98	4,167	2.01	4,603	3.37	4,871	2.66	2,473	7.48
2016	2,823	-3.78	4,242	1.80	4,780	3.85	4,988	2.40	2,602	5.22
2017	2,815	-0.28	4,491	5.87	5,344	11.80	5,794	16.16	3,079	18.33
2018	3,051	8.38	4,691	4.45	5,700	6.66	5,907	1.95	3,202	3.99
2019	3,171	3.93	4,849	3.37	5,876	3.09	5,939	0.54	3,278	2.37
2020	3,038	-4.19	5,123	5.64	6,079	3.46	6,053	1.92	3,378	3.06
증감액	766		1,740		2,272		2,329		1,604	
연평균 증가율	3.13		4.25		4.84		5.07		6.74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집단 간 소득 불평등 추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현재 경상소득이 가장 많은 40대 가구 대비 다른 연령대별 가구의 소득 비중을 산출하였는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40대 가구와 비교할 때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연령대는 20대와 30대 가구였다.

40대 가구 대비 20대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56.66%에서 2020년 46.19%로 -10.47%p 하락했으며, 처분가능소득 비중 또한 59.68%에서 49.98%로 -9.7%p 줄었다. 그 결과 두 가구 집단 간 경상소득 격차는 2010년 2,071만원에서 2020년 4,115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1,536만원에서 2020년 3,041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대 가구와 40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30대 가구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88.84%에서 2020년 84.27%로 -4.57%p 하락했으며,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87.57%에서 82.97%로 -4.6%p 감소하면서, 30대 가구 또한 40대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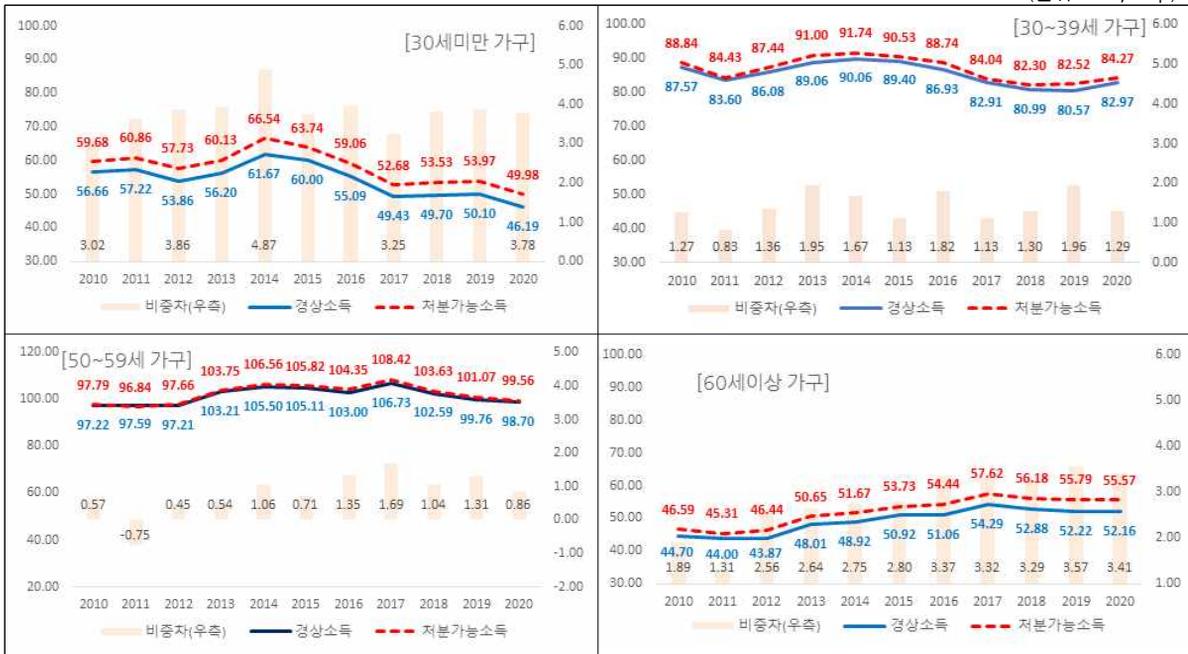
50대 가구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모두 40대 가구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살아있다면, 40대 가구 대비 50대 가구의 소득 우위가 지속해서 유지되었겠지만, 성과급과 연봉제의 확산으로 앞으로도 40대와 50대 가구소득 순위는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0대 가구는 유일하게 40대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확연하게 줄면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다. 60대 가구의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44.70%에서 2020년 52.16%로 7.46%p 상승했고, 처분가능소득 비중도 46.59%에서 55.57%로 9.98%p 늘어났다. 경상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간 비중 차 또한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면서 세후소득 개선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림17] 40대 가구 대비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비중 추이

(단위 : %, %p)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비중 변화를 보면, 30대(80.8→80.7%), 40대(79.7→79.5%) 그리고 50대(80.2→80.2%) 가구는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가구는 2.1%p(83.9→86.0%), 60대 가구는 1.6%p(83.1→84.7%) 상승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20대 가구의 경상소득(세전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증가율도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현 세율 체계에서 20대 가구에게는 세후 소득분배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20대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중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 비소비지출 자체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20대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액과 증가율(60만원, 13.81%)은 30대(421만원, 52.49%), 40대(598만원, 61.59%), 50대(574만원, 62.26%)대는 물론이고 소득취약 집단인 60대(249만원, 68.78%) 가구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20대 가구가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보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율의 누진성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청년세대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표16]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비중 변화

(단위 : 만원, %)

구 분		경상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소득액	비중	지출액	비중	소득액	비중
30세미만	2010	2,707	100.0	435	16.1	2,272	83.9
	2020	3,533	100.0	495	14.0	3,038	86.0
	증감액	826		60		766	
	증가율	30.51		13.81		33.70	
30~39세	2030	4,184	100.0	802	19.2	3,383	80.8
	2040	6,346	100.0	1,223	19.3	5,123	80.7
	증감액	2,162		421		1,740	
	증가율	51.66		52.49		51.43	
40~49세	2050	4,778	100.0	971	20.3	3,808	79.7
	2060	7,648	100.0	1,569	20.5	6,079	79.5
	증감액	2,870		598		2,271	
	증가율	60.07		61.59		59.64	
50~59세	2070	4,645	100.0	922	19.8	3,724	80.2
	2080	7,549	100.0	1,496	19.8	6,053	80.2
	증감액	2,904		574		2,329	
	증가율	62.52		62.26		62.54	
60세이상	2010	2,136	100.0	362	16.9	1,774	83.1
	2020	3,989	100.0	611	15.3	3,378	84.7
	증감액	1,853		249		1,604	
	증가율	86.75		68.78		90.4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의 소득원천별 소득 변화(증가율&순증액)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기준 경상소득이 가장 많았던 40대 가구를 보면, 공적이전소득(193.98%, 113만원) > 재산소득(127.05%, 193만원) > 노동소득(55.58%, 1,929만원) > 사적이전소득(33.87%, 13만원) > 사업소득(3.32%, 5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이 높았지만, 순증액을 보면 노동소득이 1,929만원으로 압도적이었다.

20대 가구는 공적이전소득(202.93%, 79만원) > 재산소득(194.32%, 33만원) > 사업소득(112.29%, 252만원) > 사적이전소득(39.48%, 34만원) > 노동소득(10.20%, 256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202.93%로 두드러져 보였지만, 30대(333.79%, 160만원)와 40대(193.98%, 113만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변화와 비교하면, 20대 가구만의 특징도

아니었고, 증가액은 불과 79만원으로 30대나 40대 가구에도 못 미쳤다. 한편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할 때 사업소득은 증가율(112.29%)도 가장 높았고, 순증액(252만원)도 가장 많았지만, 노동소득 증가율(10.20)과 순증액(256만원)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20대 청년 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자영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대 가구의 소득원천별 소득 변화는 공적이전소득(333.79%, 160만원) > 재산소득(203.74%, 114만원) > 노동소득(36.37%, 1,328만원) > 사적이전소득(29.38%, 11만원) > 사업소득(16.22%, 131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333.7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 확대와 더불어 2013년부터 시작된 양육수당 지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50대 가구는 재산소득(89.46%, 214만원) > 노동소득(69.28%, 2,181만원) > 공적이전소득(65.41%, 75만원) > 사적이전소득(6.80%, 3만원) > 사업소득(-7.38%, -121만원)의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소득 증가율은 -7.38%로 줄고, 노동소득 증가율은 69.28%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50대 가구 상당수가 자영업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0대 가구는 노동소득(104.44%, 860만원) > 공적이전소득(91.05%, 412만원) > 재산소득(79.03%, 232만원) > 사업소득(23.41%, 138만원) > 사적이전소득(1.11%, 2만원)의 변화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낮았지만 순증액이 가장 많았던 공적이전소득은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되어 시행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17]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증양값
30세미만	2012	2,879	2,513	224	17	39	86	2,589
	2020	3,533	2,769	476	50	118	120	2,962
	증감	654	256	252	33	79	34	373
	증가율	22.71	10.20	112.29	194.32	202.93	39.48	14.41
30~39세	2012	4,601	3,653	805	56	48	39	4,000
	2020	6,346	4,981	936	170	208	50	5,523
	증감	1,745	1,328	131	114	160	11	1,523
	증가율	37.92	36.37	16.22	203.74	333.79	29.38	38.08
40~49세	2012	5,345	3,470	1,629	152	58	38	4,320

	2020	7,648	5,399	1,683	345	171	51	6,352
	증감	2,303	1,929	54	193	113	13	2,032
	증가율	43.09	55.58	3.32	127.05	193.98	33.87	47.04
50~59세	2012	5,196	3,148	1,645	239	115	50	4,080
	2020	7,549	5,329	1,524	453	190	53	6,274
	증감	2,353	2,181	-121	214	75	3	2,194
	증가율	45.28	69.28	-7.38	89.46	65.41	6.80	53.77
60세이상	2012	2,345	823	591	293	453	185	1,359
	2020	3,989	1,683	729	525	865	187	2,713
	증감	1,644	860	138	232	412	2	1,354
	증가율	70.11	104.44	23.41	79.03	91.05	1.11	99.6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를 보면, 가장 젊은 연령대인 20대 가구는 기준연도 대비 노동소득 비중이 크게 줄었는데, 2012년 87.29%에서 2020년 78.38%로 -8.90%p나 감소했다. 반면 20대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은 5.68%p(7.78%→13.46%) 늘었었는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20대 가구의 자영업(or 개인사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했었음을 알 수 있다.

40대 이상 가구 모두 노동소득 비중은 늘어나고, 사업소득 비중은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소득 비중은 40대가 5.67%p(64.92→70.59%), 50대는 10.01%p(60.59→70.59%), 60대는 7.08%p(35.10→42.18%) 상승했다.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40대가 -8.47%p(30.48→22.01%), 50대는 -11.48%p(31.66→20.18%), 60대는 -6.92%p(25.20→18.28%) 줄었다. 전반적으로 40대 이상의 가구 상당수가 자영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고용시장도 경력자에게 더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8]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

(단위 : %, %p)

구 분		전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30세 미만	2012	100.00	87.29	7.78	0.59	1.35	2.99
	2020	100.00	78.38	13.46	1.42	3.34	3.40
	증감	-	-8.90	5.68	0.83	1.99	0.41
30~39세	2012	100.00	79.40	17.50	1.22	1.04	0.85
	2020	100.00	78.50	14.74	2.68	3.28	0.80
	증감	-	-0.90	-2.75	1.46	2.24	-0.05
40~49세	2012	100.00	64.92	30.48	2.84	1.09	0.71

가구주 교육정도별 &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2020	100.00	70.59	22.01	4.51	2.23	0.67
	증감	-	5.67	-8.47	1.67	1.14	-0.05
50~59세	2012	100.00	60.59	31.66	4.60	2.21	0.96
	2020	100.00	70.59	20.18	6.00	2.52	0.71
	증감	-	10.01	-11.48	1.40	0.31	-0.25
60세 이상	2012	100.00	35.10	25.20	12.49	19.32	7.89
	2020	100.00	42.18	18.28	13.15	21.70	4.69
	증감	-	7.08	-6.92	0.66	2.38	-3.2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에서 2020년사이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증가율, 증감액)를 보면, 20대 가구는 주거비(34.16%, 96만원)와 식료품비(17.86%, 90만원), 의료비(4.41%, 3만원) 지출은 늘었고, 통신비(-6.45%, -10만원)와 교육비(-3.57%, -2만원) 지출은 줄었다.

30대 가구는 식료품비(31.57%, 221만원)와 의료비(25.22%, 29만원), 주거비(8.91%, 27만원), 통신비(5.56%, 10만원) 등의 지출이 늘고, 교통비(-7.88%, -23만원)와 교육비(-6.74%, -19만원)는 줄었다.

40대 가구는 의료비(36.89%, 45만원)와 식료품비(36.84%, 280만원)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고, 주거비(9.12%), 교육비(2.77%, 19만원), 통신비(2.39%, 5만원) 등 대개의 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교통비만 -5.60%(-19만원) 감소했다.

50대 가구는 모든 항목 지출이 늘었는데 특히 식료품비(31.06%, 223만원)와 의료비(16.56%, 26만원)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60대 가구 역시 모든 항목 지출이 늘었는데, 소비지출 증가율은 37.27%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비목별 증가율 역시 최저 17.14%에서 최고 49.65%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19] 가구주 연령대별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30세 미만	2012	1,607	504	281	56	68	176	155	366
	2020	1,939	594	377	54	71	177	145	521
	증감	332	90	96	-2	3	1	-10	155
	증가율	20.66	17.86	34.16	-3.57	4.41	0.57	-6.45	42.35
30~39세	2012	2,380	700	303	282	115	292	180	507
	2020	2,919	921	330	263	144	269	190	802
	증감	539	221	27	-19	29	-23	10	295
	증가율	22.65	31.57	8.91	-6.74	25.22	-7.88	5.56	58.19

40~49세	2012	2,970	760	340	687	122	339	209	514
	2020	3,676	1,040	371	706	167	320	214	857
	증감	706	280	31	19	45	-19	5	343
	증가율	23.77	36.84	9.12	2.77	36.89	-5.60	2.39	66.73
50~59세	2012	2,768	718	330	442	157	337	195	588
	2020	3,332	941	359	455	183	338	218	837
	증감	564	223	29	13	26	1	23	249
	증가율	20.38	31.06	8.79	2.94	16.56	0.30	11.79	42.35
60세이상	2012	1,339	436	211	35	141	140	78	298
	2020	1,838	608	267	41	211	173	101	437
	증감	499	172	56	6	70	33	23	139
	증가율	37.27	39.45	26.54	17.14	49.65	23.57	29.49	46.6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그림18] 가구주 연령대별 1인당 소비지출액 및 20대 가구 대비 소비 비중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소비지출액 = 각년도 연령대별 소비지출액 / 각년도 연령대별 가구원 수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소비지출증가율은 20대(20.66%), 30대(22.65%), 40대(23.77%), 50대(20.38%), 60대(37.27%) 등으로 20대와 50대의 소비지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 1인당 소비지출액을 보면, 20대 가구가 1,21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0대(1,111만원) > 40대(1,081만원) > 30대(1,007만원) > 60대(91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소득은 적지만 20대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었다.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은 20대 가구 대비 다른 연령대의 소비지출액 비중을 보면, 50대 가구는 2012년 105.57%에서 2020년 91.65%까지 비중이 하락했다. 40대 가구는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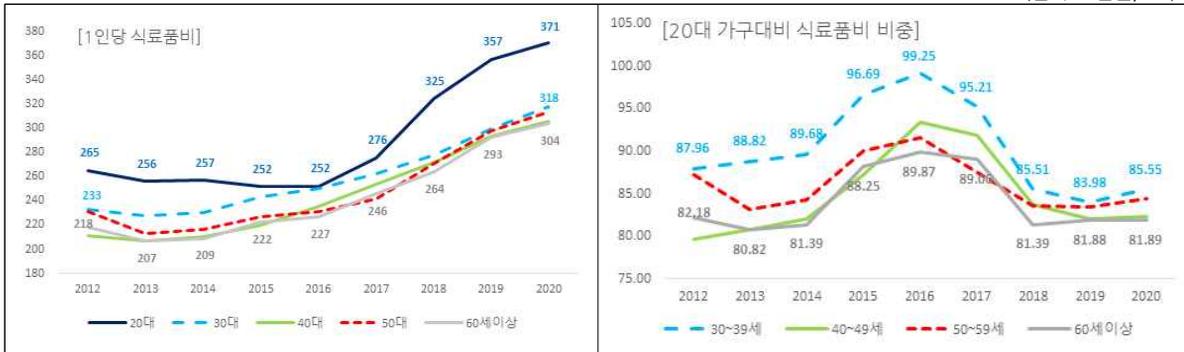
97.54%에서 2020년 89.22%까지 떨어졌다. 30대(93.80→83.06%)와 60대(79.16→75.83%) 가구 또한 기준연도 대비 비중이 하락하는 등 20대 가구가 가장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었다.

2020년 기준 1인당 식료품비 또한 20대 가구가 371만원으로, 30대(318만원), 50대(314만원), 40대(306만원), 60대(304만원)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대 가구의 1인당 식료품비는 2012년에도 265만원으로 가장 많긴 했지만, 2016년 252만원까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로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2020년 371만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6년 주택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말 그대로 ‘N포세대⁶⁾’의 모습 그대로였다.

20대 가구 대비 연령대별 1인당 식료품비 비중 또한 2016년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대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가구 대비 식료품비 비중은 2012년도와 비교할 때 40대(79.59→82.39%) 가구만 소폭 증가했고, 30대(87.96→85.55%), 50대(87.31→84.49%), 60대(82.18→81.89%) 가구 모두 감소했다.

[그림19] 가구주 연령대별 1인당 식료품비 및 20대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식료품비 = 각년도 연령대별 식료품비 / 각년도 연령대별 가구원 수

2020년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보면 60대가 1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61만원) > 30대(50만원) > 40대(49만원) > 20대(44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매우 많았는데, 이는 2020년 기준 60대 가구 평균연령은 70.5세로 50대 가구(평균연령 54.5세)는 물론 다른 연령대와 크기 때문이었다. 40대부터 20대 가구

6)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에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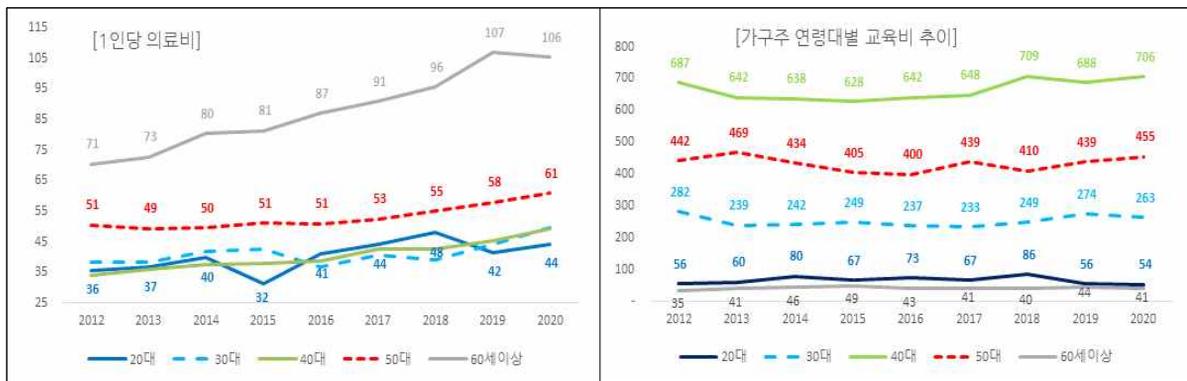
까지의 1인당 의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20년 기준 교육비 지출은 40대 가구가 7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455만원)와 30대(263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4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두드러졌는데, 2020년 40대 가구의 평균연령은 44.8세이며, 가구원 수는 3.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창 사교육비 지출이 급증하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다. 50대 가구는 평균연령 54.5세, 가구원 수 3.0명으로 대학생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40대 다음으로 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20대(평균연령 26.7세, 가구원수 1.6명)나 60대(평균연령 70.5세, 가구원수 2.0명) 가구는 상대적으로 학령기(유치원~대학생) 자녀가 없어 교육비 지출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20] 가구주 연령대별 의료비(1인당) 및 교육비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의료비 = 각년도 연령대별 의료비 / 각년도 연령대별 가구원 수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저축가능액 추이를 보면,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축가능액 증가율 또한 높았는데, 60대가 130.54%(668→1,540만원)로 가장 높았고, 50대 87.27%(1,453→2,721만원), 40대 77.76%(1,352→2,403만원), 30대 57.53%(1,399→2,204만원), 20대 23.62%(889→1,09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저축가능액 증가액은 50대 1,26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051만원), 60대(872만원), 30대(805만원), 20대(210만원)의 순이었다.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았던 20대 가구의 저축가능액 증가율(23.62%)과 순증액(210만원)은 가장 낮았는데, 순증액 210만원은 50대 가구 순증액(1,268만원)의 16.6%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소득 대비 지출액(소비지출+비소비지출) 비중은, 저축가능액 증가율이 높았던 만큼, 모든 연령대에서 줄어들었다.

[표20]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지출, 저축가능액 추이

(단위 : 만원, %p, %)

구 분	소득액(a)	소비지출(b)	비소비지출 ©	저축가능액 (a-b-c)	지출액 /소득액	저축가능액 /소득액	
30세미만	2012	2,879	1,607	383	889	69.12	30.88
	2020	3,533	1,939	495	1,099	68.89	31.11
	증감	654	332	112	210	(0.23)	0.23
	증가율	22.71	20.66	29.24	23.62	-0.33	0.74
30~39세	2012	4,601	2,380	822	1,399	69.59	30.41
	2020	6,346	2,919	1,223	2,204	65.27	34.73
	증감	1,745	539	401	805	(4.32)	4.32
	증가율	37.92	22.65	48.78	57.53	-6.21	14.21
40~49세	2012	5,345	2,970	1,023	1,352	74.71	25.29
	2020	7,648	3,676	1,569	2,403	68.58	31.42
	증감	2,303	706	546	1,051	(6.13)	6.13
	증가율	43.09	23.77	53.37	77.76	-8.20	24.23
50~59세	2012	5,196	2,768	975	1,453	72.04	27.96
	2020	7,549	3,332	1,496	2,721	63.96	36.04
	증감	2,353	564	521	1,268	(8.08)	8.08
	증가율	45.28	20.38	53.44	87.27	-11.22	28.90
60세이상	2012	2,345	1,339	338	668	71.51	28.49
	2020	3,989	1,838	611	1,540	61.39	38.61
	증감	1,644	499	273	872	(10.12)	10.12
	증가율	70.11	37.27	80.77	130.54	-14.15	35.5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또한 60대 가구가 가장 크게 늘었는데, 2012년 28.49%에서 2020년 38.61%로 10.12%p가 상승했다. 60대 가구의 소득이나 저축가능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노후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정년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대 가구의 저축가능액 비중은 2012년 30.88%에서 2020년 31.11%로 0.23%p 상승에 그쳤다. 2016년 38.85%까지 상승했던 저축가능액 비중이, 이후 급락세를 보였는데,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내집 마련을 포기한 'N포' 세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외 50대 가구 저축가능액은 8.08%p(27.96→36.04), 40대 가구는 6.13%p(25.29→

31.42%), 30대 가구는 4.32%p(30.41→34.73%) 상승했다.

[그림21]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가능액 및 소득대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저축가능액이 가장 많았던 50대 가구를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의 저축가능액 비중을 산출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보았는데, 20대 가구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2012년 50대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20대 가구의 저축가능액은 61.18%에 달했었는데, 이후 비중이 꾸준히 하락 2020년 40.39%까지 떨어졌다. 다른 연령대 역시 2012년도와 비교할 때 비중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20대 가구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대 가구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절망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모으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이 잘 보여준다. 20대 가구의 경우 2012년 저축가능액으로 2012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모으는데는 57.12년이 필요했지만,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2020년 12월 기준 94.91년까지 늘어났다.

20대 가구를 제외하면, 2020년 기준 소요기간은 30대(47.33년), 40대(43.40년), 50대(38.33년) 등으로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2] 50대 가구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 저축 소요기간

(단위 : %, 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KB주택가격동향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저축소요기간(년) = 각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 각 년도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가능액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60대 가구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균형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가구의 경우 해당 기간 분위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분위(61.00%)와 2분위(43.35%)의 소득증가율이 소득 상위 40%인 4분위(43.17%)와 5분위(34.25%)의 증가율보다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었다. 중위소득 증가율(99.63%) 또한 평균소득 증가율(70.11%)보다 높아 하위 50% 가구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

50대 가구 또한 소득 하위 40%(1, 2분위)의 소득증가율이 상위 40%(4, 5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위소득 증가율(53.77%)이 평균소득 증가율(45.28%)보다 높았다. 50대 가구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 또한 개선되었다.

40대 가구는 중위소득 증가율(47.04%)이 평균소득 증가율(43.09%)보다 소폭 높긴했지만, 상위 40%(4, 5분위) 소득증가율이 하위 40%(1, 2분위)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큰 변화는 없는 상태였다. 30대 가구 역시 40대 가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20대 가구는 평균소득 증가율(22.72%)이 중위소득 증가율(14.41%)보다 높았을 뿐아니라, 소득 상위 40%(4, 5분위) 소득증가율이 하위 40%(1, 2분위)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20대 가구 집단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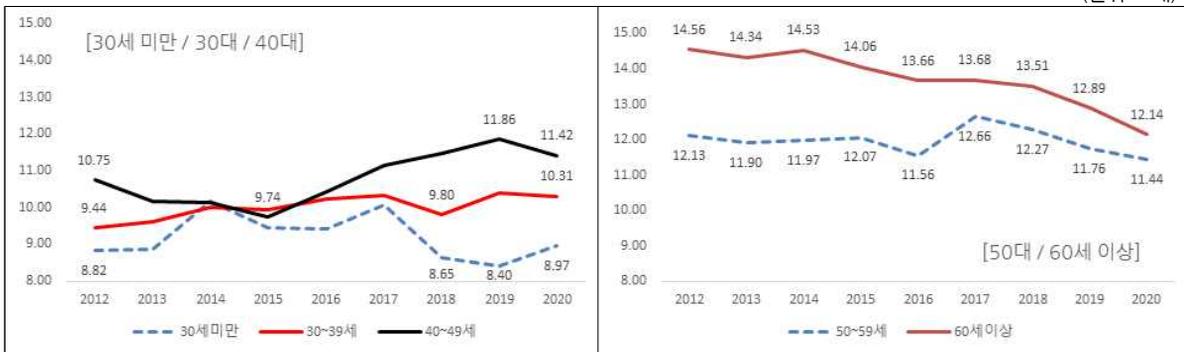
구분	연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
30세미만	2012	2,879	915	2,014	3,235	4,857	8,071	2,589
	2020	3,533	1,221	2,699	4,543	6,853	10,955	2,962
	증감	654	306	685	1,308	1,996	2,884	373
	증가율	22.72	33.44	34.01	40.43	41.10	35.73	14.41

30~39세	2012	4,601	953	2,068	3,395	5,022	8,998	4,000
	2020	6,346	1,248	2,851	4,739	7,057	12,869	5,523
	증감	1,745	295	783	1,344	2,035	3,871	1,523
	증가율	37.93	30.95	37.86	39.59	40.52	43.02	38.08
40~49세	2012	5,345	945	2,034	3,368	5,089	10,161	4,320
	2020	7,648	1,246	2,838	4,671	7,145	14,235	6,352
	증감	2,303	301	804	1,303	2,056	4,074	2,032
	증가율	43.09	31.85	39.53	38.69	40.40	40.09	47.04
50~59세	2012	5,196	863	2,014	3,333	5,049	10,464	4,080
	2020	7,549	1,229	2,782	4,757	7,169	14,054	6,274
	증감	2,353	366	768	1,424	2,120	3,590	2,194
	증가율	45.28	42.41	38.13	42.72	41.99	34.31	53.77
60세이상	2012	2,345	700	1,896	3,273	4,966	10,191	1,359
	2020	3,989	1,127	2,718	4,586	7,110	13,681	2,713
	증감	1,644	427	822	1,313	2,144	3,490	1,354
	증가율	70.11	61.00	43.35	40.12	43.17	34.25	99.6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그림23] 연령대별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단위 : 배)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5분위배율을 보면, 60대(14.56→12.14배)와 50대(12.13→11.44배) 가구 집단은 소득 5분위 배율은 낮아졌다.

40대(10.75→11.42배)와 30대(9.44→10.31배) 그리고 20대(8.82→8.97배)의 소득 5분위배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높아져,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60대와 50대 가구 집단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2020년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0대가 12.14배로 가장 높았고, 50대(11.44배), 40대(11.42배), 30대(10.31배) 등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8.97배로 가장 낮았다.

아래 그림은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20대와 6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비중을 산출한 것이다. 전체 가구 대비 20대 비중은 2010년 74.57%에서 2020년 63.06%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반면 60대 가구는 58.21%에서 70.12%로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20대 가구소득은 줄어들고 있었고, 60대 가구소득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24]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20대 및 60대 처분가능소득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처분가능소득 비중(%) = 각년도 (30세 미만 & 60세 이상) 처분가능소득 / 각년도 전체가구 처분가능소득

2) 가구 재무(자산&부채)상태 변화

2020년 기준 총자산액은 50대(50,903만원)가 가장 많았고, 40대(48,686만원) > 60대(42,701만원) 30대(35,467만원) > 20대(10,7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총자산 순증액은 40대(19,684만원)가 가장 많았고, 30대(15,771만원), 50대(14,532만원), 60대(13,217만원), 20대(3,152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총자산 증가율은 30대(80.07%) > 40대(67.87%) > 60대(44.83%) > 20대(41.65%) > 50대(39.95%)의 순으로 자산 순증액 순위와는 달랐다.

[표22] 가구주 연령대별 재무상태 변화

(단위 : 만원, %)

구 분		순자산	자산		부채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30세미만	2010	6,632	7,568	4,213	3,355	936	857	80
	2020	7,241	10,720	6,450	4,270	3,479	3,200	279
	증감액	609	3,152	2,237	915	2,543	2,343	199
	증가율	9.18	41.65	53.10	27.27	271.69	273.40	248.75
30~39세	2010	15,716	19,696	6,379	13,318	3,981	2,949	1,031
	2020	25,385	35,467	11,775	23,692	10,082	8,243	1,839
	증감액	9,669	15,771	5,396	10,374	6,101	5,294	808
	증가율	61.52	80.07	84.59	77.89	153.25	179.52	78.37
40~49세	2010	23,367	29,002	7,398	21,604	5,626	3,995	1,631
	2020	37,359	48,686	12,635	36,051	11,327	8,885	2,443
	증감액	13,992	19,684	5,237	14,447	5,701	4,890	812
	증가율	59.88	67.87	70.79	66.87	101.33	122.40	49.79
50~59세	2010	30,151	36,371	6,748	29,622	6,220	4,335	1,885
	2020	40,987	50,903	12,694	38,209	9,915	7,422	2,493
	증감액	10,836	14,532	5,946	8,587	3,695	3,087	608
	증가율	35.94	39.95	88.11	28.99	59.41	71.21	32.25
60세이상	2010	25,815	29,484	3,855	25,629	3,669	2,089	1,580
	2020	37,422	42,701	7,840	34,861	5,279	3,174	2,105
	증감액	11,607	13,217	3,985	9,232	1,610	1,085	525
	증가율	44.96	44.83	103.37	36.02	43.88	51.94	33.23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총자산 증감액과 증가율이 모두 높았던 40대와 30대 가구의 공통된 특징은 ①부채증가율과 순증액이 40대(101.33%, 5,701만원), 30대(153.25%, 6,101만원) 등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②실물자산 증가율과 순증액도 40대(66.87%, 14,447만원), 30대(77.89%, 10,374만원) 등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많이 늘려 상대적으로 실물자산 비중을 늘렸던 가구 집단의 총자산이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30대와 40대 가구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결과,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가구와의 자산 격차는 줄어들었다. 50대 가구와 3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2010년 16,674만원에서 2020년 15,435만원으로 줄었다. 50대 가구와 4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2010

년 7,369만원에서 2020년 2,21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부채증가율은 271.69%로 가장 높았지만, 실물자산 증가율(27.27%)과 순증액(915만원)이 가장 낮았던 20대 가구의 총자산 순증액은 3,152만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50대 가구와의 자산 격차는 2012년 28,803만원에서 2020년 40,183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림25] 연령대별 50대 가구와의 자산 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자산 격차(만원) = 각년도 50대 가구 자산 - 각년도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 가구 자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은 23.58% 대 76.42%였다. 전체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60.17%)와 30대(33.20%) 등 젊은 세대였으며, 20대 가구는 유일하게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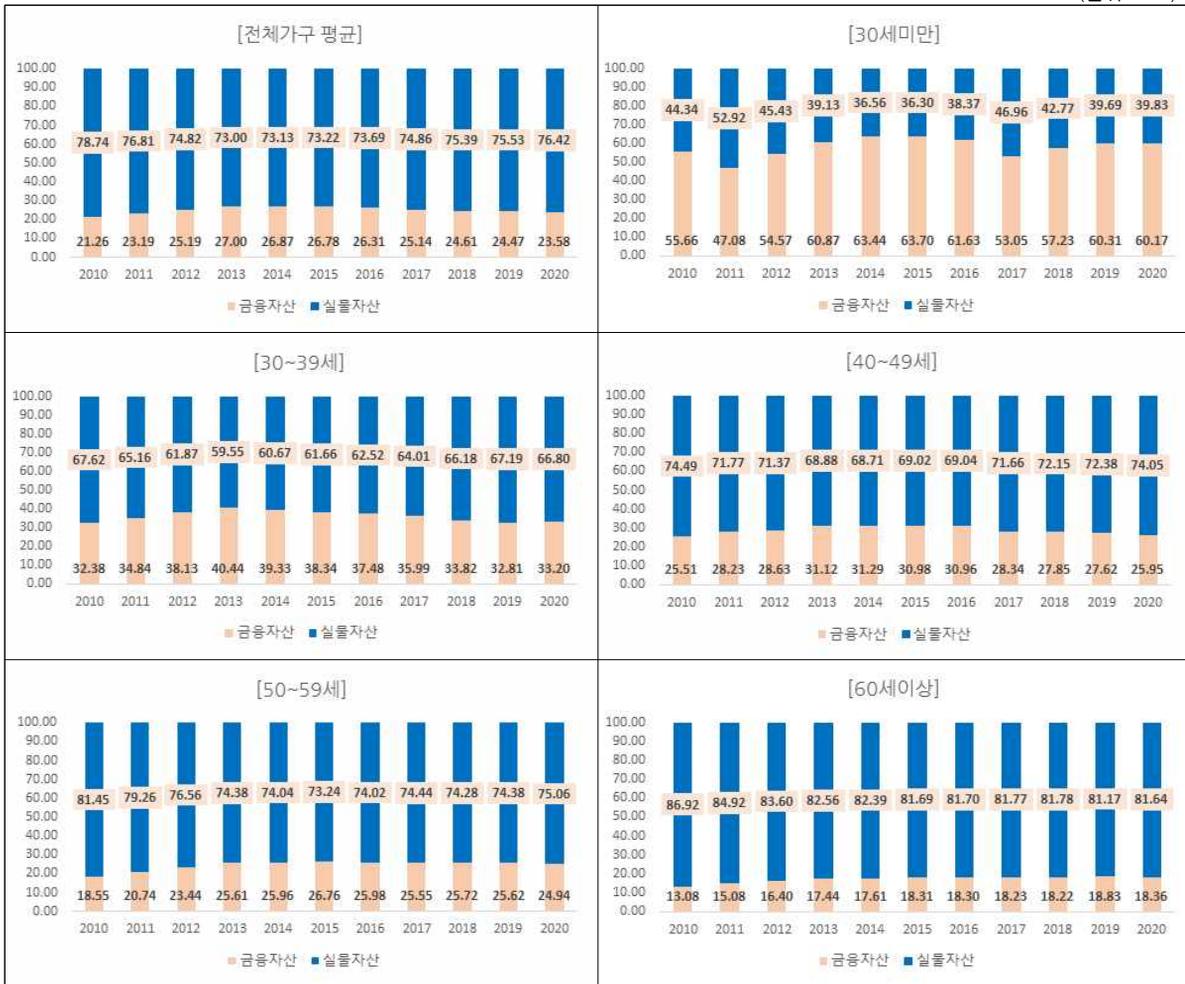
한편 60대 가구 실물자산 비중은 2010년 86.92%에서 2020년 81.64%로 5.28%p 줄긴 했지만, 연령대별 가구 중 가장 실물자산 비중이 높았다.

2020년 기준 실물자산 비중은 50대 가구가 75.06%로 40대 가구 실물자산 비중 74.05%보다 높았지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실물자산 증가율과 순증액은 40대(66.87%, 14,447만원)가 50대(28.99%, 8,587만원)보다 많았다. 부채증가율과 증감액 또한 40대(101.33%, 5,701만원)가 50대(59.41%, 3,695만원) 가구보다 많았다. 그 결과 총자산 순증액도 40대가 19,684

만원으로 50대 14,532만원보다 많았다.

[그림26]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변화를 보면, 부채 순증액은 30대(6,101만원)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5,701만원), 50대(3,695만원), 20대(2,543만원), 60대(1,61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는 20대 증가율이 271.6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153.25%), 40대(101.33%)의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부채증가율과 순증액이 모두 많았던 30대(6,101만원, 153.25%)와 40대(5,701만원, 101.33%) 가구는 자산(30대 80.07% / 40대 67.87%) 및 순자산(30대 61.52% / 40대 59.88%) 증가율 또한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부채총액은 40대가 11,3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0,082만원) > 50대(9,915만원) > 60대(5,279만원) > 20대(3,479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가구가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20대 가구는 부채가 가장 적었다.

20대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채증가율보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60대가 232.96%로 가장 높았고, 40대(170.47%), 30대(167.74%), 50대(106.60%), 20대(77.89%) 등이었다. 원리금상환액 순증액은 40대가 1,106만원(649→1,75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970만원, 578→1,549만원), 50대(710만원, 666→1,377만원), 60대(483만원, 207→690만원), 20대(226만원, 291→51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상환액 또한 40대와 30대가 순증액은 물론 증가율도 높았다.

[표23]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부채					원리금상환액				
	30세 미만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30세 미만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2010	936	3,981	5,626	6,220	3,669	291	578	649	666	207
2011	1,268	4,609	6,469	6,895	3,898	327	695	829	755	278
2012	1,283	4,405	6,728	7,671	3,662	327	644	826	756	254
2013	1,401	4,890	6,879	7,959	4,201	278	745	933	876	324
2014	1,481	5,257	6,922	7,982	4,406	340	884	1,069	1,019	446
2015	1,491	5,463	7,160	7,939	4,843	334	1,048	1,172	1,145	554
2016	1,681	5,920	8,120	8,369	5,030	370	1,229	1,436	1,276	572
2017	2,393	6,920	8,637	8,670	5,199	393	1,183	1,424	1,210	565
2018	2,591	8,088	10,109	8,820	5,380	354	1,305	1,499	1,409	587
2019	3,197	8,915	10,689	9,321	5,222	509	1,579	1,602	1,297	738
2020	3,479	10,082	11,327	9,915	5,279	517	1,549	1,756	1,377	690
증감	2,542	6,101	5,702	3,695	1,610	226	970	1,106	710	483
증가율	271.53	153.27	101.35	59.41	43.88	77.89	167.74	170.47	106.60	232.96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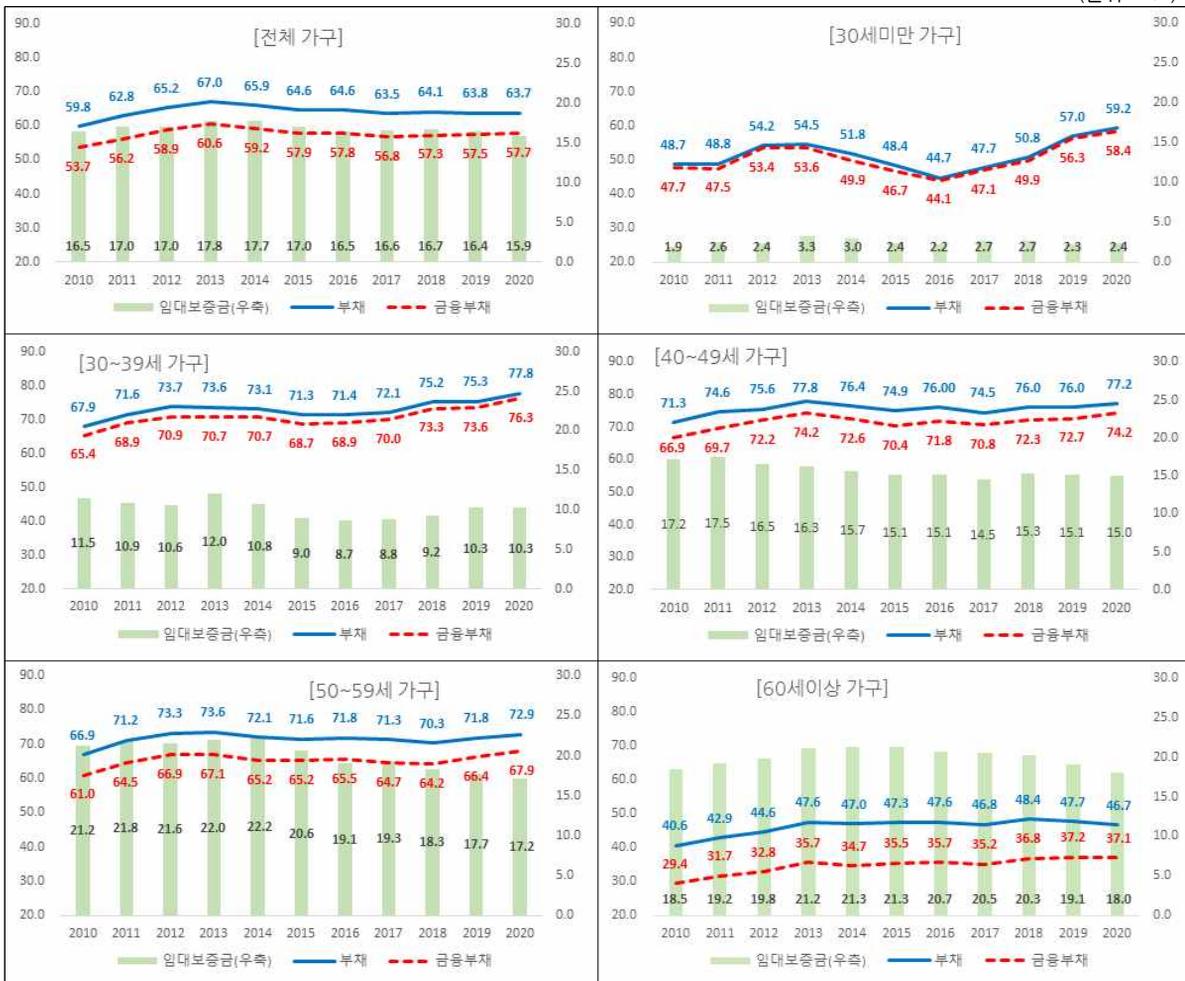
부채 보유량도 많고 증가율도 높았던 연령대의 부채보유 가구분포 또한 높았다. 2020년 기준 부채보유 가구분포는 30대 가구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40대(77.2%)와 50대(72.9%)도 전체 가구 평균(63.7%)보다 높았다. 20대(59.2%)와 60(46.7%) 가구의 부채보유 가구분포는 전체 가구 평균을 밑돌았다.

20대 가구 부채보유 가구분포는 2010년 48.7%에서 2020년 59.2%로 10.5%p 상승,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2020년 기준 부채의 92%가 금융부채로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는 2.4%에 불과했다.

2020년 60대 가구의 부채보유 가구분포는 46.7%였는데, 금융부채 보유 가구분포는 37.1%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 이유는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분포가 18.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임대보증금 부채는 임대 대상인 부동산 자체가 담보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환능력에 있어 금융부채보다는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27]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량의 상대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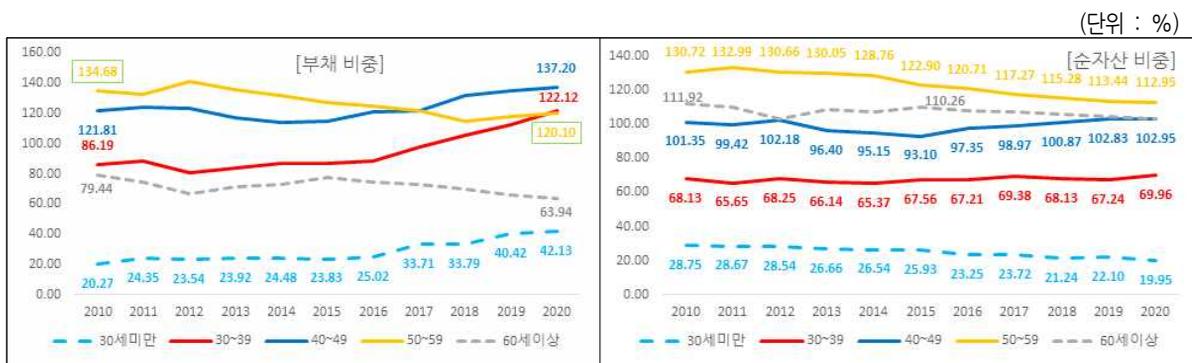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연령대별 부채 비중을 산출해보았다.

기준연도인 2010년에 비해 부채 비중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22.03%p)와 30대(35.93%p) 그리고 40대(15.39%p) 가구였으며, 50대(-14.58%p)와 60대(-15.50%p)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비중이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대비 연령대별 부채 비중은 40대가 137.20%로 가장 높았고, 30대(122.12%), 50대(120.10%), 60대(63.94%), 20대(42.13%) 가구 등이었다.

20대 가구의 경우 부채증가율이 높긴 했지만,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비중은 42.13%에 불과,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매우 적었다. 60대 부채 비중도 63.94%로 전체 가구 평균에 못 미쳤다.

[그림28] 전체 가구 평균 대비 연령대별 부채 및 순자산 비중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20년 기준 순자산액은 50대(40,987만원) > 60대(37,422만원) > 40대(37,359만원) > 30대(25,385만원) > 20대(7,241만원)의 순으로 많았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순증액은 40대(13,992만원) > 60대(11,607만원) > 50대(10,836만원) > 30대(9,669만원) > 20대(609만원) 등이었다. 20대 가구의 순자산 순증액은 609만원에 불과 다른 연령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순자산 증가율은 30대(61.52%) > 40대(59.88%) > 60대(44.96%) > 50대(35.94%) > 20대(9.18%) 등으로 나타났는데, 순자산 증가율 역시 20대 가구는 9.18%에 불과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순자산 증가율 및 순증액이 가장 적었던 결과, 전체 가구 평균 대비 20대 가구의 순자산 비중은 2010년 28.75%에서 2020년 19.95%로 -8.80%p나 줄어들었다. 50대 가구 순자산 비중은 2010년 130.72%에서 2020년 112.95%로 -17.77%p 줄었고, 60대 가구 순자산 비중 역시 2010년 111.92%에서 2020년 103.13%로 8.79%p 감소했다.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대비 비중이 증가한 연령대는 30대와 40대로 해당 기간 이 두 가구 집단의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4]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및 전체가구 평균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p)

구 분	순자산						연령대별 순자산 /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					
	전체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세 이상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세 이상	
2010	23,066	6,632	15,716	23,376	30,151	25,815	28.75	68.13	101.35	130.72	111.92	
2011	24,560	7,043	16,124	24,419	32,663	27,013	28.67	65.65	99.42	132.99	109.99	
2012	26,875	7,671	18,342	27,460	35,116	27,640	28.54	68.25	102.18	130.66	102.85	
2013	26,831	7,152	17,745	25,864	34,894	29,140	26.66	66.14	96.40	130.05	108.61	
2014	27,488	7,296	17,970	26,156	35,393	29,463	26.54	65.37	95.15	128.76	107.18	
2015	28,429	7,373	19,207	26,467	34,940	31,346	25.93	67.56	93.10	122.90	110.26	
2016	29,918	6,956	20,109	29,125	36,113	32,218	23.25	67.21	97.35	120.71	107.69	
2017	31,572	7,489	21,904	31,246	37,026	33,772	23.72	69.38	98.97	117.27	106.97	
2018	34,368	7,301	23,415	34,667	39,621	36,358	21.24	68.13	100.87	115.28	105.79	
2019	35,281	7,796	23,723	36,278	40,024	36,804	22.10	67.24	102.83	113.44	104.32	
2020	36,287	7,241	25,385	37,359	40,987	37,422	19.95	69.96	102.95	112.95	103.13	
증감	13,221	609	9,669	13,983	10,836	11,607	-8.8	1.83	1.60	-17.77	-8.79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3) 가구 재무건전성 추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변화를 보면, 20대 가구의 증가율이 177.88%(41.20→114.50%)로 높았는데, 2020년 기준 부채비율 114.50% 그 자체로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부채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현재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취약한 가구소득으로 보아 부채상환 능력이 나빠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30대(196.81%)와 40대(186.33%)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0%대에 육박하고 있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특히 30대 가구 부채비율은 2010년 117.68%에서 2020년 196.81%로 79.13%p나 상승했다. 40대 가구의 경우 30대 가구보다 상승 폭은 낮은 편이었지만,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

라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6.83%로 가계 재무 안정성이 부족했던 60대 가구는, 이후 상대적으로 가계부채를 자제함으로써 2020년 부채비율이 156.26% 수준까지 내려왔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채를 관리한다면 현재 소득이나 자산규모로 보아 부채상환에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25]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30세미만	30 ~ 39	40 ~ 49	50 ~ 59	60세이상
2010	41.20	117.68	147.75	167.04	206.83
2011	49.79	130.50	154.64	170.22	205.66
2012	51.42	116.57	155.67	181.73	182.46
2013	53.88	124.27	159.09	177.42	191.83
2014	49.98	128.69	155.45	168.22	191.48
2015	50.82	131.10	155.55	162.99	195.84
2016	59.55	139.56	169.87	167.78	193.31
2017	85.01	154.09	161.62	149.64	168.85
2018	84.92	172.42	177.35	149.31	168.02
2019	100.82	183.85	181.91	156.95	159.30
2020	114.50	196.81	186.33	163.81	156.26
증감(%p)	73.29	79.13	38.58	-3.23	-50.57
증가율	177.88	67.25	26.11	-1.93	-24.4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 추이를 보면, 20대와 30대 가구의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144.32%에서 2020년 316.54%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금융부채 비율은 131.16%에서 291.19%로 늘어났는데, 부채비율과 금융부채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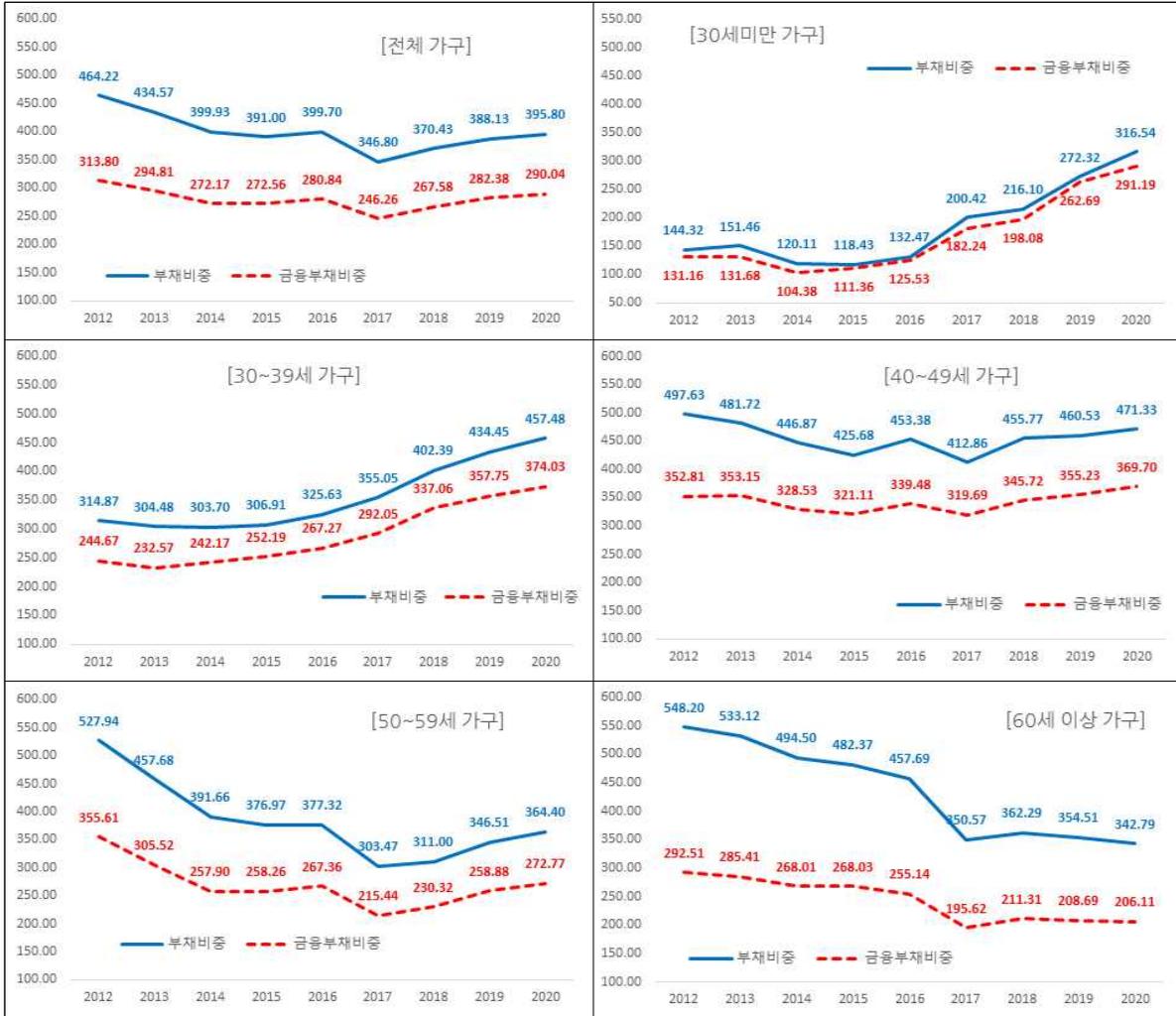
30대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도 314.87%에서 457.48%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금융부채 비중도 244.67%에서 374.03%로 늘어났다.

2020년 40대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은 471.33%로 연령대별 가구 중 가장 높았으나, 2010년 497.63%와 비교할 때는 소폭 낮아졌다. 문제는 2017년 412.86%를 저점으로 부채비율이 재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축가능액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2010년 352.81%에서 2020년 369.70%로 소폭 상승한 상태다.

50대나 60대 가구의 금융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2012년 기준연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였다.

[그림29]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및 금융부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20년 기준 총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보면, 20대(32.45%) > 30대(28.43%) > 40대(23.27%) > 50대(19.48%) > 60대(12.36%)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대 가구 부채 비중 증가율은 162.3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0대는 40.65%, 40대는 19.94%, 50대는 13.90%의 증가율을 보였다. 60대 가구는 기준연도 대비 부채 비중이 -

0.66% 감소했다.

2020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30대(70.00%)와 40대(70.32%) 가구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금융부채 비중 증가율은 20대 가구가 143.95%로 가장 높았는데, 현재의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유동성 위험이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30대와 40대 가구도 금융부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26] 가구주 연령대별 재무건전성 추이

(단위 : %, %p)

구 분	부채/자산					금융부채/금융자산				
	30세 미만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30세 미만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2010	12.37	20.21	19.40	17.10	12.44	20.34	46.24	54.00	64.24	54.18
2011	15.25	22.23	20.94	17.43	12.61	29.02	48.81	53.19	58.20	48.87
2012	14.33	19.37	19.68	17.93	11.70	23.86	39.46	48.74	51.52	38.07
2013	16.38	21.60	21.01	18.57	12.60	23.40	40.80	49.49	48.41	38.67
2014	16.87	22.63	20.93	18.40	13.01	23.11	45.89	49.16	46.67	40.03
2015	16.82	22.15	21.29	18.51	13.38	24.83	47.46	51.85	47.39	40.61
2016	19.47	22.74	21.80	18.81	13.50	29.93	49.81	52.72	51.31	41.14
2017	24.22	24.01	21.66	18.97	13.34	41.51	54.86	59.16	52.71	40.84
2018	26.19	25.67	22.58	18.21	12.89	41.95	63.59	61.50	52.42	41.26
2019	29.08	27.31	22.76	18.89	12.43	46.51	68.56	63.56	55.08	38.85
2020	32.45	28.43	23.27	19.48	12.36	49.62	70.00	70.32	58.47	40.48
증감	20.08	8.22	3.87	2.38	-0.08	29.28	23.77	16.31	-5.77	-13.70
증가율	162.30	40.65	19.94	13.90	-0.66	143.95	51.40	30.21	-8.98	-25.28

3. 나가며

가구주 성별·종사상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던 지난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고소득 가구 및 저소득 가구 집단 간 소득 격차는 지속하여 확대되고 있었고, 가구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이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자산 가구 집단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었고, 부채를 레버리지로 자산 증식에 활용해 왔다. 더불어 2016년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가구주 교육정도 및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지난 보고서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출과 고졸 가구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2016년 이후 가중되고 있었고,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 순증액은 가구주 대출 이상 가구가 2,877만원(5,449→8,326만원)으로 고졸 가구 1,780만원(3,621→5,401만원)보다 많았고, 대출과 고졸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는 2010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6만원으로 늘어났다.

동일 기간 총자산 증가율도 대출 가구가 64.23%(40,258→66,115만원)로 고졸 가구 49.75%(24,116→36,114만원)보다 높았고, 두 가구 간 자산 격차는 16,143만원에서 30,001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대출과 고졸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0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6만원으로 1.6배가 늘었는데, 자산 격차는 16,143만원에서 30,001만원으로 1.86배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그림30] 대출 및 고졸 가구 소득·자산 격차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둘째, 자산 불평등이 심화의 주요 원인은 부채 레버리지와 2016년 이후의 주택가격 급등이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순증액은 대출 가구가 5,981만원(7,326→13,307만원)으로 고졸 가구 2,660만원(3,978→6,638만원)보다 많았고, 증가율도 대출이 81.64%로 고졸 가구 66.87%보다 높았다.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2010년 1월 53,99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은, 이후 48,000만원에서 54,000만원대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였다가, 2016년 1월 55,282만원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연출, 2020년 12월 기준 104,299만원까지 상승했다.

그간의 가계부채 증가와 2016년 이후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고려하면,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부채를 동원할 수 있었던 가구 집단이 재산 증식에 유리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대출 가구 실물자산 순증액(&증가율)은 18,764만원(61.09%, 30,714→49,478만원)으로 고졸 가구 8,883만원(46.76%, 18,998→27,881만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결과 총자산은 물론 순자산 순증액도 대출 가구가 19,875만원(32,933→52,808만원)으로 고졸 가구 9,339만원(20,138→29,477만원)보다 많았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변화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총자산 순증액과 증가율이 모두 높았던 40대와 30대 가구의 공통된 특징이 ①부채증가율과 순증액 모두 40대(101.33%, 5,701만원)와 30대(153.25%, 6,101만원) 가구가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많았으며 ②실물자산 증가율과 순증액도 40대(66.87%, 14,447만원)와 30대(77.89%, 10,374만원) 가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채 순증액은 30대(6,101만원)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5,701만원), 50대(3,695만원), 20대(2,543만원), 60대(1,610만원) 가구의 순이었다. 실물자산 순증액은 40대(14,447만원), 30대(10,374만원), 60세(9,232만원), 50대(8,587만원), 20대(915만원)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총자산 순증액은 40대(19,684만원)가 가장 많았고, 30대(15,771만원), 50대(14,532만원), 60대(13,217만원), 20대(3,152만원) 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셋째, 20대 가구의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는 ‘N포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2010년 20대(30세 이하 가구) 가구분포는 5.3%에 달했으나, 저출산과 청년층의 결혼 포기 현상 등으로 2020년 20대 가구분포는 2.0%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대 가구 경상소득 연평균증가율(&순증액)은 2.85%(826만원)로 30대(4.27%, 2,162만원), 40대(4.86%, 2,870만원), 50대(5.05%, 2,904만원), 60대(6.54%, 1,853만원) 가구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2020년 기준 60대 가구주 평균연령은 70.5세였다.

전체 가구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20대와 6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비중을 보면, 20대 가구 비중은 2010년 74.57%에서 2020년 63.06%로 하락했으나, 반면 60대 가구는 58.21%에서 70.12%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다른 연령대 가구와 비교할 때,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20대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112.29%)과 순증액(252만원)은 가장 많았지만, 노동소득 증가율(10.20)과 순증액(256만원)은 가장 적었다. 20대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자영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20대 가구의 금융자산 대 실물자산 비중은 60.17% 대 39.83%로, 유일하게 금융자산 비중이 실물자산보다 높은 가구 집단이었다.

2020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액을 보면, 20대 가구가 1,21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0대(1,111만원), 40대(1,081만원), 30대(1,007만원), 60대(91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식료품비 지출액도 20대 가구가 371만원으로 30대(318만원), 50대(314만원), 40대(306만원), 60대(304만원)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2016년 이후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어, 말 그대로 ‘N포세대’의 모습 그대로였다.

넷째, 부채증가율이 높았던 가구 집단의 경우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주택가격 하락 시 가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부채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대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0년 171.46%에서 2020년 204.09%로 32.63%p가 늘어났다. 2020년 기준 30대(196.81%)와 40대(186.33%)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또한 200%대에 육박하고 있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만으로 가계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나라지표’에서 제공되는 OECD 기준에 의한 2019년 주요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한국이 190.6%로 스페인(105.0%), 프랑스(122.1%), 영국(142.1%), 핀란드(148.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대 가구의 2020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14.50%로 당장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증가율이 177.88%(41.20→114.50%)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취약한 가구소득으로 보아 부채상환 여력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향은 여전히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 시 현실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 줄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금융 공공성 측면에서도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다주택자 재테크를 위한 대출 수요는 선제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끝)